

세계 전자책 시장의 현황 조사와 이슈 분석

이 용 준(대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목 차 |

- I. 세계 출판시장의 현황과 성과 분석
- II. 세계 전자책시장의 현황과 성과 분석
- III. 전자책 시장의 쟁점과 이슈 분석
- IV. 각국의 주요 e북 관련 업체 및 연도별 베스트셀러 현황

I. 세계 출판시장의 현황과 성과 분석

1. 개관

세계 도서 출판시장은 수년간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크게 침체되지 않았다. 2011년 세계출판시장 규모는 전년에 비해 1.3%가 감소한 1120억달러였다.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북미지역 324억달러, EMEA지역 447억달러, 아시아·태평양지역 312억달러, 라틴 아메리카 35억달러 등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전세계 출판시장이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 연평균 0.6%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6년엔 1157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향후 5년간은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성장률이 가장 돋보일 것으로 보인다.(PWC, 2012).

< 전세계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 Region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p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2-16 CAGR |
|---------------|----------------|----------------|----------------|----------------|----------------|----------------|----------------|----------------|----------------|----------------|--------------|
| North America | 33,906 | 32,722 | 32,841 | 33,611 | 32,458 | 32,253 | 32,494 | 33,018 | 33,657 | 34,304 | |
| % Change | 6.7 | -3.5 | 0.4 | 2.3 | -3.4 | -0.6 | 0.7 | 1.6 | 1.9 | 1.9 | 1.1 |
| EMEA | 47,155 | 47,252 | 46,080 | 45,264 | 44,770 | 44,454 | 44,367 | 44,435 | 44,594 | 44,810 | |
| % Change | 2.6 | 0.2 | -2.5 | -1.8 | -1.1 | -0.7 | -0.2 | 0.2 | 0.4 | 0.5 | 0.0 |
| Asia Pacific | 30,085 | 31,592 | 31,340 | 31,160 | 31,240 | 31,752 | 32,004 | 32,178 | 32,236 | 32,283 | |
| % Change | 8.2 | 5.0 | -0.8 | -0.6 | 0.3 | 1.6 | 0.8 | 0.5 | 0.2 | 0.1 | 0.7 |
| Latin America | 3,183 | 3,378 | 3,338 | 3,495 | 3,598 | 3,714 | 3,841 | 3,992 | 4,147 | 4,322 | |
| % Change | 3.1 | 6.1 | -1.2 | 4.7 | 2.9 | 3.2 | 3.4 | 3.9 | 3.9 | 4.2 | 3.7 |
| Total | 114,329 | 114,944 | 113,599 | 113,530 | 112,066 | 112,173 | 112,706 | 113,623 | 114,634 | 115,719 | |
| % Change | 5.3 | 0.5 | -1.2 | -0.1 | -1.3 | 0.1 | 0.5 | 0.8 | 0.9 | 0.9 | 0.6 |

출처 : PricewaterhouseCoopers LLP, Wilkofsky Gruen Associates.

2011년 전세계 출판시장의 규모를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나눠 살펴보면, 종이책의 매출(오디오북포함)은 1065억달러, 전자책 매출은 55억원이었다. 이 중 종이책의 매출을 다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소비자 도서는 665억달러, 교육용 도서는 400억달러였으며, 전자책의 매출은 소비자 도서가 41억달러, 교육용 도서가 14억달러였다. 따라서 2011년 전세계 출판시장에서 전자책의 비중은 4.9%를 차지하고 있었다 (PWC, 2012).

2016년까지 전세계 출판시장은 종이책의 이용자는 점차 줄어들고 반면에 전자책의 이용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이책시장은 2011년 1065억달러에서 연평균 2.3% 마이너스 성장해 2016년 949억달러로 줄어들고, 전자책시장은 2011년 55억달러 시장에서 연평균 30.3% 성장해 2016년에는 2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2016년 전세계 출판시장에서 전자책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7.9%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유형별 전세계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2~2016 평균 |
|------------------|---------|---------|---------|---------|---------|---------|---------|---------|---------|-----------------|
| 종이책(오디오북포함)시장 | 113,522 | 111,457 | 110,171 | 106,527 | 103,948 | 101,523 | 99,295 | 97,084 | 94,954 | |
| 종이책 시장 성장률 | 0.1 | -1.8 | -1.2 | -3.3 | -2.4 | -2.3 | -2.2 | -2.2 | -2.2 | -2.3 |
| 전자책 시장 | 1,422 | 2,142 | 3,359 | 5,539 | 8,225 | 11,183 | 14,328 | 17,550 | 20,785 | |
| 전자책 시장 성장률 | 48.6 | 50.6 | 56.8 | 64.9 | 48.5 | 36.0 | 28.1 | 22.5 | 18.3 | 30.3 |
| 출판시장 전체(종이책+전자책) | 114,944 | 113,599 | 113,530 | 112,066 | 112,173 | 112,706 | 113,623 | 114,634 | 115,719 | |
| 출판시장 전체 성장률 | 0.5 | -1.2 | -0.1 | -1.3 | 0.1 | 0.5 | 0.8 | 0.9 | 0.9 | 0.6 |

출처 : PricewaterhouseCoopers LLP, Wilkofsky Gruen Associates.

이러한 전자책 시장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도서의 판매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가 회복된다면, 교육용 도서시장도 종이책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볼 때, 책은 여성 독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를 위한 어린이 도서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편이다. 또한,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중년 독자들이 다시 책을 찾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기계발서와 전문서적에 대한 수요도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ReportLinker, 2012).

2. 지역별 출판 시장 현황

가. 북미 시장

2011년 325억 달러였던 북미의 출판시장은 연평균 1.1% 성장해서 2016년에는 34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중 소비자 도서분야의 종이책 시장은 2011년 179억달러에서 연평균 마이너스 9.0% 성장을 보여 2016년 111억달러가 될 것이고, 교육 도서분야의 종이책 시장도 연평균 1.5%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2011년 111억달러의 시장 규모가 2016년에는 103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미 전체의 종이출판시장은 2011년 290억달러에서 2016년 214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PWC, 2012).

반면에, 전자책은 같은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35억달러에 불과했던 북미의 전자책 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29.9% 성장해 12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중 소비자 도서분야의 전자책시장은 연평균 32.2% 성장해 2011년 27억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 109억달러로 성장할 것이고, 교육분야의 전자책 시장은 연평균 20.5% 성장해 2011년 7억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2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유형별 북미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2~2016 평균 |
|------------------|--------|--------|--------|--------|--------|--------|--------|--------|--------|-----------------|
| 종이책(오디오북포함)시장 | 32,199 | 31,894 | 31,805 | 28,972 | 26,919 | 25,266 | 23,879 | 22,587 | 21,392 | |
| 종이책 시장 성장률 | -3.9 | -0.9 | -0.3 | -8.9 | -7.1 | -6.1 | -5.5 | -5.4 | -5.3 | -5.9 |
| 전자책 시장 | 523 | 947 | 1,806 | 3,486 | 5,334 | 7,228 | 9,139 | 11,070 | 12,912 | |
| 전자책 시장 성장률 | 35.1 | 81.1 | 90.7 | 93.0 | 53.0 | 35.5 | 26.4 | 21.1 | 16.6 | 29.9 |
| 출판시장 전체(종이책+전자책) | 32,722 | 32,841 | 33,611 | 32,458 | 32,253 | 32,494 | 33,018 | 33,657 | 34,304 | |
| 출판시장 전체 성장률 | -3.5 | 0.4 | 2.3 | -3.4 | -0.6 | 0.7 | 1.6 | 1.9 | 1.9 | 1.1 |

출처 : PricewaterhouseCoopers LLP, Wilkofsky Gruen Associates,

전체적으로 볼 때, 향후 북미 출판시장에서 종이책의 매출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전자책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 전체 출판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나. EMEA(Europe, Middle East, Africa) 시장

EMEA 지역의 출판시장은 현재 유럽지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향후 2~3년간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이 되면 전체 시장 규모가 448억달러에 이르러,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도서분야의 종이책 시장은 2011년 294억달러에서 연평균 마이너스 1.5%의 성장을 보여

2016년 273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교육 도서분야의 종이책 시장도 연평균 마이너스 1.9%의 성장을 보여 2011년 145억달러의 시장 규모가 2016년에는 132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EMEA지역의 전체 종이출판시장은 2011년 440억달러에서 2016년 405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PWC, 2012).

반면에 전자출판물은 같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종이책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전자책은 점차 종이책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2011년 8억 1천만달러에 불과했던 EMEA지역의 전자책 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39.7%씩 성장해 4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중 소비자 도서분야의 전자책시장은 연평균 49.4% 성장해 2011년 3억달러에서 2016년에 26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교육 도서분야의 전자책 시장은 연평균 29.8% 성장해 2011년 4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17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EMEA지역의 유형별 출판시장 현황과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2~2016 평균 |
|------------------|--------|--------|--------|--------|--------|--------|--------|--------|--------|-----------------|
| 종이책(오디오북포함)시장 | 47,102 | 45,756 | 44,745 | 43,960 | 43,206 | 42,476 | 41,808 | 41,157 | 40,497 | |
| 종이책 시장 성장률 | 0.0 | -2.9 | -2.2 | -1.8 | -1.7 | -1.7 | -1.6 | -1.6 | -1.6 | -1.6 |
| 전자책 시장 | 150 | 324 | 519 | 810 | 1,248 | 1,891 | 2,627 | 3,437 | 4,313 | |
| 전자책 시장 성장률 | 154.2 | 116.0 | 60.2 | 56.1 | 54.1 | 51.5 | 38.9 | 30.8 | 25.5 | 39.7 |
| 출판시장 전체(종이책+전자책) | 47,252 | 46,080 | 45,264 | 44,770 | 44,454 | 44,367 | 44,435 | 44,594 | 44,810 | |
| 출판시장 전체 성장률 | 0.2 | -2.5 | -1.8 | -1.1 | -0.7 | -0.2 | 0.2 | 0.4 | 0.5 | 0.0 |

출처: PricewaterhouseCoopers LLP, Wilkofsky Gruen Associates.

EMEA지역 중 서유럽의 출판 시장 규모는 2011년에 전년보다 마이너스 1% 성장한 395억달러가 되었다. 그리고, 2016년까지도 연평균 0.1%라는 미약한 성장세를 보여 397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유럽과 동유럽 지역의 출판시장 규모는 2011년 35억 달러였으며, 2016년까지 연평균 마이너스 1.3%의 성장세를 보여 32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유럽시장은 세계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서유럽과 중유럽, 동유럽을 합친 유럽 전체의 출판시장은 전세계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되고 있다(ReportLinker, 2012).

한편, EMEA의 또 다른 지역인 중동과 아프리카의 출판시장은 2011년에는 18억달러의 규모였으며, 2016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여 1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EMEA지역에서 가장 큰 출판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출판 시장 규모가 2011년에 97억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독일 다음으로는 출판 시장이 큰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인데, EMEA지역 중 주로 서유럽 국가들이 규모가 큰 출판시장을 가지고 있었다(BISG&APP, 2012).

〈 EMEA의 지역별 출판시장 현황과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2~2016 평균 |
|--------------|--------|--------|--------|--------|--------|--------|--------|--------|--------|-----------------|
| 서유럽 | 41,104 | 40,537 | 39,913 | 39,528 | 39,275 | 39,219 | 39,317 | 39,483 | 39,701 | 0.1% |
| 센트럴 유럽 및 동유럽 | 4,283 | 3,746 | 3,571 | 3,455 | 3,382 | 3,339 | 3,292 | 3,263 | 3,235 | -1.3% |
| 중동 및 아프리카 | 1,865 | 1,797 | 1,780 | 1,787 | 1,797 | 1,809 | 1,826 | 1,848 | 1,874 | 1.0% |
| EMEA 지역 전체 | 47,252 | 46,080 | 45,264 | 44,770 | 44,454 | 44,367 | 44,435 | 44,594 | 44,810 | 0.0% |

출처 : PricewaterhouseCoopers LLP, Wilkofsky Gruen Associates.

EMEA에서 유럽 지역은 많은 국가들이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RPM, 도서정가제와 같은 개념임)를 시행하고 있어 서점에서 임의대로 할인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즉, 도서의 판매가격 결정권은 오로지 출판사나 출판업자에게만 부여가 되고 있다. 반면에 EMEA지역에서 영국은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정가와 상관없이 서점 및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는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을 제한하여 유럽의 안정적인 출판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출판사와 도서유통의 도·소매업자들이 예상 가능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지역에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가 없는 국가들조차 책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책을 읽는 독자층은 인구 범주별로 해마다 비슷한 수의 도서를 구매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 아시아-태평양 시장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출판시장은 2011년 312억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2016년까지는 연평균 0.7%의 성장세를 보여 32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중 소비자 도서분야의 종이책 시장은 2011년 177억달러에서 연평균 마이너스 0.4% 성장을 보여 2016년 173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교육 도서분야의 종이책 시장도 연평균 1.3%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2011년 123억달러의 시장 규모가 2016년에는 115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전체 종이출판시장은 2011년 300억달러에서 2016년 289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PWC, 2012).

반면에 전자책 시장은 같은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2억달러에 불과했던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전자책 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22.6% 성장해 3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소비자 도서분야의 전자책시장은 연평균 15.7% 성장해 2011년 11억달러에서 2016년에 23억달러로 성장할 것이고, 교육분야의 전자책 시장은 연평균 50.7% 성장해 2011년 1억5천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12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유형별 아시아-태평양지역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2~2016 평균 |
|------------------|--------|--------|--------|--------|--------|--------|--------|--------|--------|-----------------|
| 종이책(오디오북포함)시장 | 30,843 | 30,470 | 30,128 | 30,001 | 30,118 | 29,957 | 29,654 | 29,259 | 28,854 | |
| 종이책 시장 성장률 | 4.3 | -1.2 | -1.1 | -0.4 | 0.4 | -0.5 | -0.1 | -1.3 | -1.4 | -0.8 |
| 전자책 시장 | 749 | 870 | 1,032 | 1,239 | 1,634 | 2,047 | 2,524 | 2,977 | 3,429 | |
| 전자책 시장 성장률 | 46.6 | 16.2 | 18.6 | 20.1 | 31.9 | 25.3 | 23.3 | 17.9 | 15.2 | 22.6 |
| 출판시장 전체(종이책+전자책) | 31,592 | 31,340 | 31,160 | 31,240 | 31,752 | 32,004 | 32,178 | 32,236 | 32,283 | |
| 출판시장 전체 성장률 | 5.0 | -0.8 | -0.6 | 0.3 | 1.6 | 0.8 | 0.5 | 0.2 | 0.1 | 0.7 |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PricewaterhouseCoopers LLP, Wilkofsky Gruen Associates.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은 가장 큰 출판 시장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일본 출판 시장은 112억달러, 중국 출판 시장은 107억달러에 달해 이 지역 시장의 70%를 차지하였다. 향후 일본 출판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0.3% 성장해 113억달러에 이를 것이며, 중국 출판 시장은 2016년까지 마이너스 0.6% 성장해 104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BISG&APP, 2012).

인도는 현재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출판 시장이 성장하는 나라이다. 2011년 26억달러였던 시장규모가 2016년까지 연평균 5.1% 성장해 3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출판시장을 가지고 있는 호주는 2011년 시장규모가 전년에 비해 1.4%가 감소한 19억 달러가 되었다. 그러나, 향후 5년간은 출판시장이 회복기를 맞아, 연평균 2.1% 성장하면서 2016년에 2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portLinker, 2012).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국가별 출판시장 현황과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2~2016 평균 |
|------|--------|--------|--------|--------|--------|--------|--------|--------|--------|-----------------|
| 호주 | 1,854 | 1,939 | 1,915 | 1,889 | 1,945 | 1,988 | 2,022 | 2,057 | 2,091 | 2.1 |
| 중국 | 11,023 | 11,068 | 10,859 | 10,669 | 10,615 | 10,544 | 10,492 | 10,435 | 10,371 | -0.6 |
| 인도 | 1,816 | 1,880 | 1,972 | 2,601 | 2,765 | 2,906 | 3,050 | 3,193 | 3,332 | 5.1 |
| 일본 | 11,925 | 11,619 | 11,544 | 11,151 | 11,440 | 11,535 | 11,540 | 11,438 | 11,342 | 0.3 |
| 대한민국 | 1,726 | 1,673 | 1,665 | 1,716 | 1,736 | 1,742 | 1,736 | 1,729 | 1,724 | 0.1 |
| 대만 | 953 | 894 | 884 | 878 | 879 | 876 | 883 | 890 | 895 | 0.4 |
| 태국 | 852 | 867 | 925 | 941 | 957 | 973 | 984 | 995 | 1,003 | 1.3 |

Sources: PricewaterhouseCoopers LLP, Wilkofsky Gruen Associates.

라. 라틴 아메리카 시장

라틴 아메리카의 출판 시장은 외국인 투자의 증가, 높은 경제성장률 등으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도서분야나 교육도서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라틴 아메리카의 출판 시장은 36억달러였으며, 2016년까지는 연평균 3.7%의 성장세를 보여 4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소비자 도서분야의 종이책 시장은 2011년 16억달러에서 연평균 2.3%의 성장을 보여 2016년 17억달러로 늘어날 것이고, 교육 도서분야의 종이책 시장도 연평균 3.9%의 성장세를 보여 2011년 20억달러의 시장 규모가 2016년에는 25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PWC, 2012).

또한, 전자책 시장도 같은 기간에 상당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1년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전자책 시장은 그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지역의 전자책 시장은 2011년 4백만달러 남짓에 불과했다.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의 전자책 시장이 부진한 이유로는 고가의 단말기들과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사이의 제한된 효용성, 전자책 콘텐츠의 부족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용 서적 분야의 경우 전자책 시장이 더욱 낙후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단말기가 증가하고, 전자책 서점도 많이 생기면서 독자들의 전자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2016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전자책 시장이 1억 1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소비자 도서분야의 전자책시장은 연평균 78.8% 성장해 2011년 4백만달러에서 2016년에 7천3백만달러로 성장하고, 교육분야의 전자책 시장은 2016년 8천8백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ReportLinker, 2012).

〈 유형별 라틴 아메리카 지역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2~2016 평균 |
|------------------|-------|-------|-------|-------|-------|-------|-------|-------|-------|-----------------|
| 종이책(오디오북포함)시장 | 3,378 | 3,337 | 3,493 | 3,594 | 3,705 | 3,824 | 3,954 | 4,081 | 4,211 | |
| 종이책 시장 성장률 | 6.1 | -1.2 | 4.7 | 2.9 | 3.1 | 3.2 | 3.4 | 3.2 | 3.2 | 3.2 |
| 전자책 시장 | 0 | 1 | 2 | 4 | 9 | 17 | 38 | 66 | 111 | |
| 전자책 시장 성장률 | - | - | - | - | 125 | 88.9 | 123.5 | 73.7 | 68.2 | 94.4 |
| 출판시장 전체(종이책+전자책) | 3,378 | 3,338 | 3,495 | 3,598 | 3,714 | 3,841 | 3,992 | 4,147 | 4,322 | |
| 출판시장 전체 성장률 | 6.1 | -1.2 | 4.7 | 2.9 | 3.2 | 3.4 | 3.9 | 3.9 | 4.2 | 3.7 |

출처 : PricewaterhouseCoopers LLP, Wilkofsky Gruen Associates,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브라질은 가장 큰 출판시장이다. 2011년에 19억달러 규모의 출판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체 라틴 아메리카 출판 시장의 53%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는 2011년에 7억 4천만달러 규모의 출판 시장을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가 5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출판 시장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출판 시장은 향후 5년간도 매우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정부는 이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출판시장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국민들의 독서를 적극 장려하고, 모든 도시에 도서관을 짓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국민 독서량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활발한 독서운동도 펼치고 있다(BISG&APP, 2012).

〈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별 출판시장 현황과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2~2016 평균 |
|-------|-------|-------|-------|-------|-------|-------|-------|-------|-------|-----------------|
| 아르헨티나 | 477 | 481 | 499 | 513 | 531 | 554 | 582 | 611 | 640 | 4.5 |
| 브라질 | 1,698 | 1,711 | 1,847 | 1,924 | 1,998 | 2,065 | 2,142 | 2,223 | 2,319 | 3.8 |
| 칠레 | 184 | 178 | 179 | 181 | 186 | 193 | 203 | 213 | 224 | 4.4 |
| 콜롬비아 | 225 | 217 | 217 | 220 | 227 | 234 | 244 | 251 | 261 | 3.5 |
| 멕시코 | 783 | 741 | 742 | 749 | 761 | 783 | 809 | 837 | 866 | 2.9 |

출처 : PricewaterhouseCoopers LLP, Wilkofsky Gruen Associates.

3. 주요 국가별 출판 시장

가. 미국의 출판시장

2011년 미국의 도서출판시장은 2010년보다 2.5% 줄어든 272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총 판매부수는 전자책의 판매성장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3.4% 늘어난 27억만부에 달했다.

〈 미국 전체 출판 시장 규모 및 판매 부수 〉

| 구 분 | 2011 | 2010 | 비고 |
|-------------|---------|---------|-------|
| 미국 출판 시장 규모 | 272억 달러 | 279억달러 | ▽2.5% |
| 미국 출판 판매 부수 | 27억7천만권 | 26억8천만권 | △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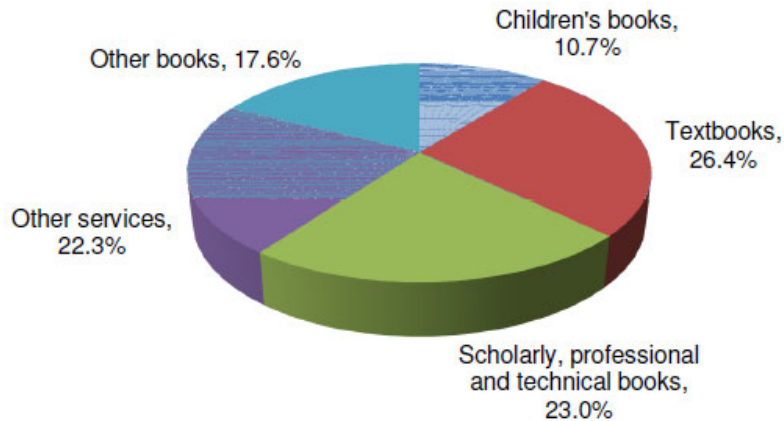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2-2016

그러나, 2012년에는 1.7% 성장하여 293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까지 미국 출판시장은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쳐 연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NewZealand Trade and Enterprise, 2012).

미국 출판시장의 분야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교육/교재 출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26.4%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학술서/전문서/과학기술서 분야가 23.0%, 어린이책 분야가 10.7%, 기타 출판분야가 17.6%를 차지하고 있다.

〈 미국 출판 시장의 분야별 시장 점유율 비교 (2012년 기준) 〉

United States: Book products and services market in 2012



출처 : IBIS World(2012)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픽션과 논픽션 도서출판은 2011년에 12% 성장해 27억 8천만달러에 달했다 (미국출판협회는 미국 출판시장을 픽션과 논픽션 분야, 청소년분야, 종교분야, 고등교육, 유아·초등교육, 학술도서분야로 나누고 있다).

전자책이 성장함에 따라 2011년 픽션과 논픽션 분야에서 온라인 서점의 매출은 35%나 늘어 50억 4천만 달러에 달했다(2010년 37억 2천만달러). 반면에 오프라인 서점의 매출은 12.6%나 줄어 85억 9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도서관이나 학교, 기업, 관공서 등에서 구입한 도서는 59억 9천만달러에 달했고, 출판사에서 독자가 직접 구입한 도서는 57% 늘어나 11억 1천만달러가 되었다.(Publishers Weekly, Jul 18, 2012), (Bloomberg News, July 18, 2012)

미국 출판 유통시장은 아마존(Amazon)과 반스앤 노블(Barnes and Noble)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들 두 서점 체인은 미국 전역에 1,300여개의 서점을 거느리고 있다.

〈 미국 출판 유통 시장의 규모 〉

| 구 분 | 2011 | 2010 | 비고 |
|-------------------|-----------|-----------|---------|
| 온라인서점 | 50억 4천만달러 | 37억 2천만달러 | + 35% |
| 오프라인 서점 | 85억 9천만달러 | 75억 1천만달러 | - 12.6% |
| 독자의 출판사 웹사이트 직접구입 | 11억 1천만달러 | 7억 1천만달러 | + 57% |

출처 : BISG&APP, BookStats 2012

한편, 미국 출판물의 해외 수출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늘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인터넷 서점의 괄목할 성장으로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미국 책을 쉽사리

주문할 수 있게 되었고, 전자책 분야에서도 미국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미국 전자책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미국 도서의 해외 유통 증가추세로 미국 주요 출판사들은 수익의 상당부분을 해외 시장에서 올리고 있다.

2011년 미국의 픽션과 논픽션 도서 해외 수출은 7,190만부, 3억 5,740만 달러에 달했다. 이것은 전년도의 7,130만부, 3억 3330만 달러의 수출에 비해 부수로는 0.9%, 액수로는 7.2%가 늘어난 수치이다.

이것을 종이책과 전자책의 수출로 나눠보면, 종이책은 2010년보다 2.3% 증가에 그친 3억 3590만 달러에 머무른 반면, 전자책은 액수로는 2010년보다 332.6% 증가한 2150만달러, 부수로는 2010년보다 303.3% 늘어난 340만부를 수출했다.

이러한 해외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유럽대륙은 전체 도서 수출이 14.7% 늘어난 8320만 달러에 달했고, 이 중 전자책은 218.8% 늘어난 580만 달러를 차지했다. 남미지역은 전체 도서 수출이 15.4% 늘어난 1670만 달러에 달했고, 이 중 전자책은 201.6% 늘어난 130만 달러를 차지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은 전체 도서 수출이 21.9% 늘어난 380만 달러에 달했고, 이 중 전자책은 636.8% 늘어난 17.86만 달러를 차지했다(BISG&APP, 2012).

〈 미국 출판물의 해외 수출 현황 〉

| | 2011년 | 2010년 | 비 고 |
|--------------|-------------|-------------|----------|
| 전체 도서 해외 수출액 | 3억 5740만 달러 | 3억 3330만 달러 | △7.2% |
| 전체 도서 해외 수출량 | 7190만권 | 7130만권 | △0.9% |
| 전자책 해외 수출액 | 2150만 달러 | 490만 달러 | △332.6% |
| 종이책 해외 수출액 | 3억 3590만 달러 | 3억 2830만 달러 | △2.3% |
| 지역별 수출액수 | | | |
| 유럽 대륙 | | | |
| 전체 수출액수 | 8320만 달러 | 7250만 달러 | △14.7% |
| 전자책 수출액 | 580만 달러 | 180만 달러 | △218.8% |
| 종이책 수출액 | 7740만 달러 | 7070만 달러 | △9.5% |
| 영국 | | | |
| 전체 수출액수 | 6410만 달러 | 5220만 달러 | △22.9% |
| 전자책 수출액 | 710만 달러 | 49.99만 달러 | △1316.8% |
| 종이책 수출액 | 5710만 달러 | 5170만 달러 | △10.4% |
| 남미 | | | |
| 전체 수출액수 | 1670만 달러 | 1440만 달러 | △15.4% |
| 전자책 수출액 | 130만 달러 | 42.79만 달러 | △201.6% |
| 종이책 수출액 | 1540만 달러 | 1400만 달러 | △9.7% |
| 아프리카 | | | |
| 전체 수출액수 | 380만 달러 | 310만 달러 | △21.9% |
| 전자책 수출액 | 17.86만 달러 | 2.42만 달러 | △636.8% |
| 종이책 수출액 | 370만 달러 | 310만 달러 | △17.1% |

출처 : BISG&APP, BookStats 2012

나. 영국의 출판시장

2010년 영국 출판 시장 규모는 31억 파운드에 달하고, 발행종수는 15만 1969종에 이르렀다. 또한, 1년 동안 총 7억 39만부의 책이 팔렸다. 전반적으로 2009년에 비해 마이너스 3%의 성장을 했으나, 교육열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덕분에 교육출판부분은 12% 넘게 성장했다(Ruediger Wischenbart, 2012).

영국 출판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주요 출판사는 Hachette, Random House, Penguin and HarperCollins 등이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출판 시장 경쟁 강도는 중간 수준이다

〈 영국의 주요 출판사 〉

| Website | UK Curriculum | Overseas / international curriculum | English Language Teaching |
|--|---------------|-------------------------------------|---------------------------|
| PEARSON Pearson Longman: www.pearsonlongman.com Longman: www.longman.co.uk Heinemann: www.heinemann.co.uk | | ✓ | ✓ |
| | ✓ | | |
| | ✓ | ✓ | |
| Oxford University Press: www.oup.com | ✓ | ✓ | ✓ |
| Nelson Thornes: www.nelsonthornes.com/wps/portal | ✓ | ✓ | |
| Hodder Education: www.hoddereducation.co.uk | ✓ | ✓ | |
| Macmillan Education: www.macmillaneducation.com | | ✓ | ✓ |
| Cambridge University Press: www.cambridge.org | ✓ | ✓ | ✓ |
| Collins Education: www.collinseducation.com | ✓ | ✓ | |

Source: UKTI

영국출판시장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서점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32.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디스카운트스토어, 잡화점, 일반소매업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영국 도서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점(음악,비디오,도서소매업) 판매 비중이 낮은 편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영국 도서의 해외수출은 2011년 16억 1천 3백만달러에 달했다. 영국 도서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36%), 중국(13%), 홍콩(11%), 독일(9%), 네덜란드(4%) 등이었다.

〈 영국 출판물의 해외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도서 | 1,432 | 1,421 | 1,613 |
| 신문/잡지 | 197 | 193 | 186 |

Source : Trade Map

다. 독일의 출판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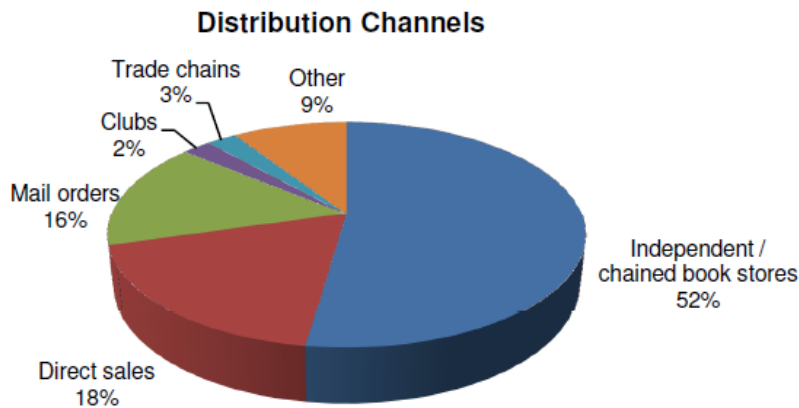
독일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출판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2011년 독일의 출판시장은 131억달러에 달했으며, 2천 2백개의 출판사가 연간 84,000여종의 신간을 출간하고 있다. 또한, 4,000여개의 서점과 8,800여개의 도서관이 독일에 있다(NewZealand Trade and Enterprise, 2012).

독일 출판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최대 출판사는 Axel Springer이고, 최대 서점체인은 Thalia이다.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Bertelsmann AG도 독일 출판시장의 키 플레이어(key player)다. Bertelsmann AG는 휘하에 46개의 출판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중에는 Heyne, Goldmann, btb, Blanvalet, C. Bertelsmann와 같은 임프린트 출판사가 포함되어 있다. Bertelsmann AG에서 가장 큰 출판사인 Random House는 200개의 임프린트 출판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편, 독일 출판 시장에서 최근 특성화 전략으로 눈에 띄는 업체로 Alouette Verlag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연과 문화에 기반한 서적에 특화 하였다. 또한 작고 독립적인 기업일수록 적은 비용으로 틈새시장을 겨냥할 수 있다는 유연한 접근 방법으로 인해 성장했다. 전반적으로 독일 출판 시장에는 경쟁 정도는 중간 정도라 할 수 있다.

독일 출판물의 주된 유통채널은 서점이다. 체인 서점 및 독립된 중소 서점이 독일 출판물의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다음으로는 출판 직접 주문 판매가 18%를 차지하고, 온라인 판매가 16%를 차지하고 있다.

〈 독일 출판물의 주요 유통 채널 〉



Source: Centre of the Picture Industry

독일 도서의 해외 수출은 2011년 7억 3천 1백만 달러였다. 독일 도서의 주요 수입국은 폴란드(18%), 영국(16%), 프랑스(10%), 중국(10%), 미국(7%) 등이었다.

〈 독일 출판물의 해외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도서 | 694 | 665 | 731 |
| 신문/잡지 | 648 | 568 | 552 |

Source : Trade Map

독일에서는 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독일에서 일반 상품은 19%의 부가가치세가 책정되지만, 책에는 7%만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다만, 전자책에는 부가가치세 혜택이 없다.(보고서 III 장 참조)

독일의 출판 시장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데, 2010년에는 3.3%가, 2011년에는 2.6%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대형 서점의 유통수익도 점차 나빠져서, 독일의 대형 서점 체인 중 하나인 Thalia는 2010년 3천만 유로였던 영업이익이 2011년에는 5백만 유로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온라인 수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수익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전자책이다(Ruediger Wischenbart, 2012).

라. 프랑스의 출판시장

프랑스 출판협회(SNE : Syndicat National de l' Edition)에 의하면, 2010년 프랑스 출판시장의 규모는 46억 유로에 달하고, 발행종수는 7만 9300종에 이르렀다.

프랑스에는 출판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으며 누구나 책을 출간할 수 있어 신규 진입자들에게 유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출판사들의 경쟁 속에서 특성화 전략이 꺾어진 다. 예컨대, Alain Ducasse Editions는 유명한 주방장들의 요리를 선명한 삽화로 제공하는 미식관련 책에 관한 출판에 특화 하였다.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출판시장 경쟁 강도는 중간 수준이라 할 수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0년 해외 콘텐츠 시장 조사)

프랑스 도서 판매 경로별 비중을 보면, 69.7%가 일반적인 서점(음반, 비디오, 도서소매업)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할인점이나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Ruediger Wischenbart, 2012).

프랑스의 만화시장 규모는 5억 1천만 달러로 전체 유럽 시장에서는 20.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만화산업에서는 8.5%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권에 가장 큰 만화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은 2010년 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유럽 시장에서 22.5%의 점유율을 세계 시장에서는 9.1%의 시장을 차지하여 프랑스보다 다소 큰 매출 규모를 보였다. 그 뒤를 영국, 이탈리아가 따르고 있으며 유럽 시장점유율은 각각 12.4%, 10.8%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만화를 예술로 인정하고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을 비롯한 세계적인 만화 박람회를 개최하며 유럽에서는 만화산업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다.

초기 프랑스 만화시장에서는 잡지 형태로 발간되는 만화가 다수였는데 그 이유는 만화가 게재될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잡지였기 때문이다. 어린이 위주의 만화시장은 점차 성인층으로 확대되어 갔고 만화 잡지 수도 점차 늘어났다.

비교적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프랑스 만화시장은 작가수도 많은 편이다. 북미 지역에 수출된 프랑스 만화는 길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종종 그래픽 노블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미국이나 일본 만화가 주류를 이루는 것과는 반대로 프랑스는 다양한 자국 만화를 보유하고 있다.

마. 일본의 출판시장

2011년 일본의 출판시장은 지진과 쓰나미 등의 영향 때문에 마이너스 3.4%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이러한 천재지변의 여파를 극복하고, 원래 출판 시장의 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11년 112억달러였던 일본의 출판시장은 2016년에는 113억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일본의 신간 발행종수는 전년보다 4.9%감소한 74,000여종이었다.

〈 일본 출판 시장의 매출액과 발행부수 〉

|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0(EB\$) | 2010/2006 |
|-------------------|----------|---------|-------|-------|-------|-------|-------|------------|-----------|
| Sales (B Yen) | Magazine | Monthly | 952 | 913 | 872 | 845 | 824 | 9.16 | 86.5% |
| | | Weekly | 268 | 270 | 258 | 242 | 229 | 2.55 | 85.7% |
| | Book | | 933 | 903 | 888 | 849 | 821 | 9.13 | 88.1% |
| | Total | | 2,153 | 2,085 | 2,018 | 1,936 | 1,875 | 20.83 | 87.1% |
| Qty (M copies) | Magazine | Monthly | 1,795 | 1,723 | 1,611 | 1,516 | 1,461 | | 81.4% |
| | | Weekly | 904 | 889 | 827 | 753 | 711 | | 78.7% |
| | Book | | 755 | 755 | 751 | 718 | 702 | | 93.0% |
| | total | | 3,454 | 3,367 | 3,189 | 2,987 | 2,874 | | 83.2% |

출처 : Japan Federation of Printing Industries(2011)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본 출판 시장은 지난 1997년을 정점으로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신간 발행종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종별 판매부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일본 출판물 유통은 몇몇 도매업체가 약 70%를 커버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대규모 출판사는 단행본과 잡지를 모두 출간하며, 동일한 채널로 유통하고 있다.

일본에는 현재 약 4,000개의 출판사가 있으며, 이 중 약 80%가 도쿄에 있다. 자체적으로 인쇄, 제본, 판매를 모두 수행하는 업체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외주를 통해 제작하며, 도매업체를 통해 판매한다. 일본 출판에서 특기할 만 한 점으로는 만화책 및 만화잡지가 일본 출판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여,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만화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1a).

일본에서도 많은 도서가 번역 출간되고 있으나, 외서 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출판사는 모든 메이저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반면, 서점은 단일 도매업체와 거래한다. 출판산업에서 도매업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출판사나 서점은 도매업체에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최근에는 온라인 서점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일본 최초의 온라인서점은 1995년 오픈한 마루젠 온라인서점이며, 현재는 아마존재팬, Seven & Y, 키노쿠니아(BookWeb), 분교토(J-book), 준쿠도(Junkudo Book Web), 라쿠텐 북스(Rakuten Books), 북원(BookOne, bk1)이 온라인 서점 시장을 이끌고 있다.

전통적인 일본 출판산업에서는 사전주문제도가 없었으나, 온라인서점의 활성화에 의해 출판사들은 소비자가 직접 예약주문을 하는 방식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전주문제도는 초판 발간부수를 적절하게 책정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 중국의 출판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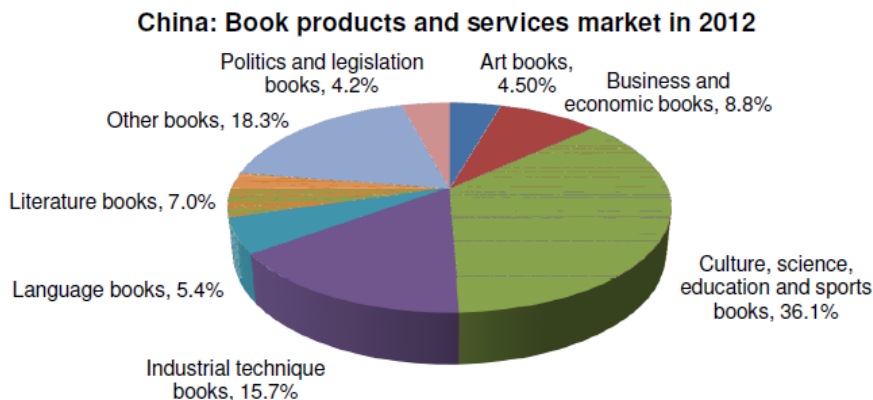
2012년 중국의 출판 시장은 전년보다 3% 성장한 95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2년 대략 369,300종의 신간이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China Publishing Today).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중국의 출판시장은 연평균 9%이상을 성장해 왔다. 이러한 출판시장의 성장률은 최근 주요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상황이다. 이것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2017년 중국의 출판시장 규모는 12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싼 물가 때문에 아직도 평균 책값이 1유로에서 3유로사이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값은 경제개발에 따른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에 동반 상승할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출판시장의 분야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문화/과학/교육 출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36.1%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기타 출판분야가 18.3%, 산업기술 출판 분야가 15.7%, 경제경영분야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 중국 출판 시장의 분야별 시장 점유율 비교 (2012년 기준) >



출처 : IBIS World(2012)

중국의 주요 출판사들은 대부분 신문출판총서(GAPP, General Administration of Press and Publication) 산하의 국영기업으로, 현재 580개의 국영출판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혁개방의 영향을 받아 민간 출판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출판물의 유통을 위한 ISBN의 확보가 쉽지 않아 민간 출판사들도 국영 출판사와 긴밀한 협력 속에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435개의 국영출판사가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출판사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들 중 상당수를 상하이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0년 말에는 중국의 대형 출판사 중에서 중국교육출판사(Higher Education Press)와 인민교육출판사(the People's Education Press), 그리고 몇몇의 작은 독립 출판사들을 합하여 중국교육출판 및 미디어 그룹(China Education Publishing and Media Group)이라는 초대형 출판사를 출범시켰다. 이 출판사의 연간 매출 규모는 60억 위안에 이른다 (Ruediger Wischenbart, 2012).

이들 출판사 이외에 중국의 출판 시장을 주도하는 출판사로는 중국출판집단공사(China Publishing Group), 신화출판미디어(Phoenix Publishing and Media Network), 외국어 교육연구출판사(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Press) 등이 있다. 이 중 중국출판집단공사는 30개의 출판자회사와 220개의 서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기업이다.

중국의 해외 도서수출은 2011년 12,900종, 1억 8천만달러에 달했다. 중국 도서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42%), 영국(17%), 홍콩(12%), 독일(6%), 싱가포르(6%) 등이다(NewZealand Trade and Enterprise, 2012).

〈 중국 출판물의 해외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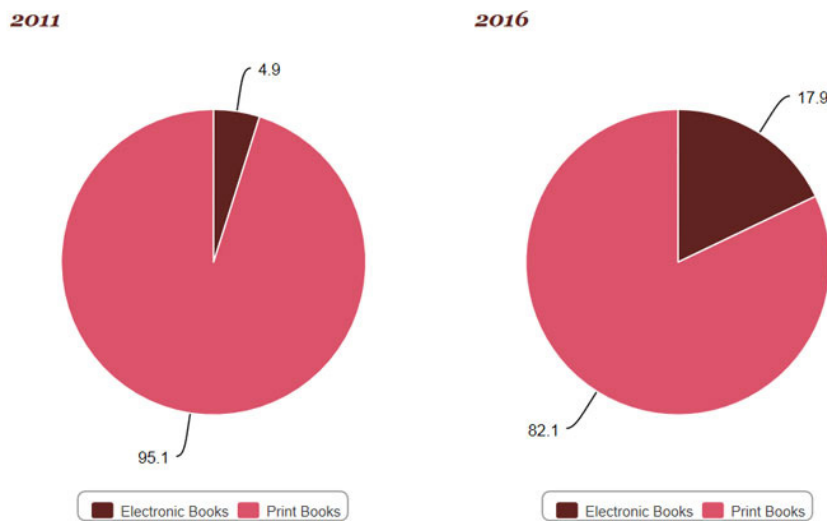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도서 | 132 | 156 | 180 |
| 신문/잡지 | 146 | 215 | 219 |

II. 세계 전자책시장 현황과 성과 분석

세계 출판시장에서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이책 시장과는, 달리 전자책 시장은 확실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이패드를 비롯한 태블릿PC의 등장과 보급 증가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책 단말기에 의존하던 전자책 시장의 외연을 확실히 키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양한 전자책 단말기의 등장은 출판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아이패드와 음원시장, 아이폰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시장의 관계와 유사하게, 향후 전자책 단말기와 전자책시장은 출판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세계 도서 출판 시장의 비중 전망 : 종이책 vs. 전자책 〉



출처 : <http://www.pwc.com/gx/en/global-entertainment-media-outlook/segment-insights/consumer-and-educational-book-publishing.jhtml>

전자책 시장의 성장에 따라 2011년 종이책과 전자책의 비율이 95.1% : 4.9%였던 세계 출판시장은 2016년 종이책과 전자책의 비율이 82.1% : 17.9%까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BISG&APP, 2012).

2. 지역별 전자책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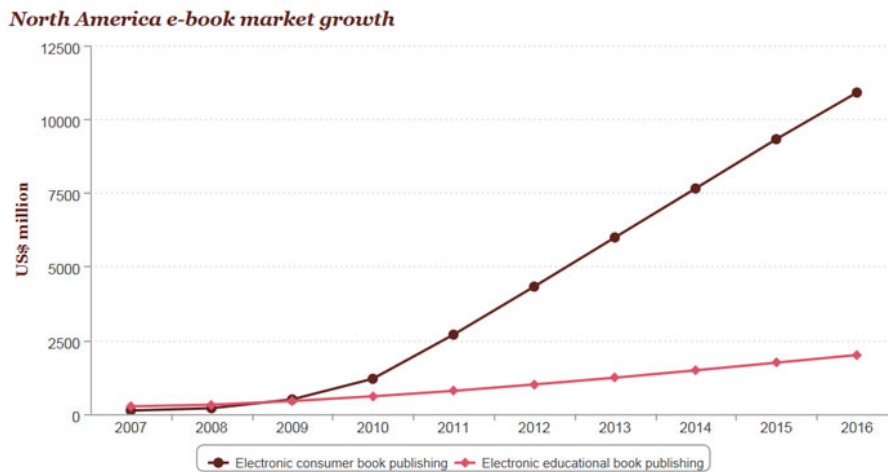
가. 북미 시장

북미의 전자책 시장은 2011년 35억달러였다. 그러나, 향후 2016년까지 연평균 29.9%씩 성장해 12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연평균 31.9%씩 성장해 2016년에

10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의 전자책 시장은 연평균 46.0%씩 성장해 2016년에 4억 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Informa, 2012).

이러한 성장추세라면, 2016년 미국의 소비자 도서 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할 것으로 여겨지며, 2016년 캐나다의 소비자 도서 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38.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전자책 시장의 성장추이 : 소비자 도서 vs. 교육 도서 〉



출처 :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2-2016

2011년 미국에서 전자책 단말기와 태블릿PC의 판매량은 2000만대가 넘었다. 그리고, 2012년 1분기 미국 성인 10명 중 3명은 전자책 단말기와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말기 시장의 판매 호조 경향은 파격적인 가격 할인 경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아마존의 전자책 단말기 킨들은 79달러까지 내려왔다(이 제품은 책을 읽지 않는 동안에 뜨는 대기화면에 광고가 나온다). 캐나다의 전자책 회사 코보는 49.99달러짜리 전자책 단말기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태블릿PC도 상당히 가격이 내려간 제품이 속속 출시되었는데, 킨들파이어(Kindle Fire)는 199달러, 반스앤노블의 Nook Tablet도 199달러에 팔리고 있다.

북미의 전자책 유통 모델은 도매 모델(wholesale model)과 대행 모델(agency model)이 공존하고 있다. 도매 모델(wholesale model)은 종이책의 온라인 판매 모델과 흡사해서 판매되는 책값의 결정은 유통사(주로 서점)가 주도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출판사가 매겨준 책값과는 상관없이 유통회사가 책의 마진율을 생각해 판매되는 책값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아마존(Amazon)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대행 모델(agency model)은 유통사는 책의 판매 공간을 제공할 뿐이며, 판매되는 책값의 결정은 출판사나 전자책 회사가 하는 것이다. 다만, 유통사는 전자책의 판매를 대행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취하게 된다. 주로 애플(Apple)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애플은 전자책 유통대행 수수료를 판매가격의 30%를 받고 있다(이용준 외, 2012).

최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애플의 대행모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애플이 이 모델을 이용하여 주요 출판사와 함께 전자책 가격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이러한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어느 정도 애플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몇몇의 대형 출판사는 대행 모델을 이용한 전자책 판매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미 지역의 전자책 성장은 당연히 종이책 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 2011년 미국 소비자 도서분야의 종이책 시장은 무려 11.9%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2011년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대형 서점체인인 보더스(Borders bookstore)가 파산하기도 했다(Lee Rainie, 2012).

이러한 사정은 캐나다도 비슷하다. 2011년 소비자 도서분야의 종이책 시장은 8.0%나 줄어들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서점인 Indio는 종이책을 진열하는 공간을 줄이고 장난감이나 기타 문구류를 진열하는 공간을 늘리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대표적인 서점체인인 H.B. Fenn이 종이책 판매량의 감소 여파로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점차 오프라인 서점은 단순한 쇼룸(Showroom)의 역할로 전락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독자들은 먼저 서점에 들러 본인이 원하는 책을 살펴본 뒤, 정작 구매는 전자책으로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래서 북미에서는 종이책이 나온 뒤 전자책이 나오는 기간이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

나. EMEA(Europe, Middle East, Africa) 시장

EMEA지역에서 전자책 시장은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태블릿PC와 전자책 단말기의 확산에 따라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 전자책 시장은 엄격한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 때문에 성장이 매우 제한적인 경향을 보였다.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나라의 독자들도 전자책을 종이책보다 더욱 싸게 이용하길 원했으나, 이들 국가의 엄격한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가 할인을 제한하고 있다.

오히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종이책에 부여하는 부가가치세(VAT) 할인 혜택을 전자책에는 적용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더 비싼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유럽에서는 부가가치세가 19~20%에 달하는 국가가 많다. 그러나 이들 나라 대부분은 종이책에 대해서는 6~7%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자책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게다가 전자책은 자신의 소유가 되는 종이책과는 달리, 단지 사용권만 구매하게 되는 매체적 속성도 있다. 따라서 유럽의 독자들은 굳이 전자책을 구매하여 이용하려는 경향이 적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태블릿PC와 전자책 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전자책이 주는 편리함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도 전자책 시장은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국은 미국에 이어 매우 빠르게 전자책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전체 유럽의 전자책 시장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직까지 유럽지역에서 전자책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출판시장에서 1.2%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북미지역의 13.1%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유럽지역에서도 2016년까지는 연평균 50%이상씩 전자책 시장이 성장해 전체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portLinker, 2012).

따라서 최근 유럽의 출판사들은 전자책 분야에 더욱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펭귄 UK(Penguin UK)는 2011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세 배로 늘렸으며, 2010년 영국 홀리데이 시즌에 200%의 전자책 판매량 증가를 기록한 하퍼콜린스(HarperCollins)도 2011년에 들어와서 자사의 전자책 분야를 더욱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Kathryn Zickuhr & Mary Madden, 2012).

다. 아시아-태평양 시장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북미 지역 이외에서 비교적 전자책 시장이 빨리 성장한 곳이다. 특히 일본이나 한국 등은 컴퓨터와 휴대폰의 보급이 빨라 전자책이 비교적 일찍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컴퓨터와 휴대폰 보다는 전자책 단말기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책을 이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러한 스마트 단말기의 보급이 느려 현재는 전자책 시장의 성장세가 크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향후에는 이 지역 특유의 IT기기 선호도, 잘 갖춰진 유·무선네트워크 인프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출판시장 등으로 인하여 전자책 분야도 더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전자책 시장은 일본과 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은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지역의 전자책 시장은 2011년 12억달러였으나, 2016년까지 22.6%의 성장세를 보여 34억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Informa, 2012).

이 지역에서 중국은 2011년에 오프라인 서점이 많이 문을 닫았다. 이것은 온라인 서점과 전자책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인데, 온라인 서점인 Jingdong은 전자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전자책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서점인 Dangdang도 전자책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라. 라틴 아메리카 시장

라틴 아메리카의 전자책 시장은 2011년 4백만달러에서 2016년 1억 1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Informa, 2012).

이 지역에서 전자책이 가장 빨리 등장해 발전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에서는 2009년부터 전자책이 등장했으며, 2011년 말 약 1만1천종의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전자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브라질의 주요 출판사 대부분이 전자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아마존은 2012년에 킨들 단말기를 브라질에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19달러에 킨들을 판매할 계획이어서, 현재 브라질에서 팔리고 있는 소니 전자책 단말기나 Positivo Alfa 단말기(479달러) 보다 훨씬 싸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점할 것으로 보인다(ReportLinker, 2012).

3. 주요 국가별 전자책 시장

가. 미국의 전자책시장

United States

| Key indicators | Values | Sources, comments |
|---|--|---|
| Book market size (p+e,* at consumer prices) | Publishers' net sale revenues: \$27.94 billion | Source: AAP/BISG; data for 2010 |
| New titles per 1 million inhabitants | 939 | |
| Ebook titles (available from publishers) | 950,000 | Amazon claims by end of 2Q2011 to have 950,000 ebook titles in their catalogue, the vast majority of which are in English |
| Market share of ebooks | 6.2% (13.6% in fiction) | AAP/BISG; data for 2010 |
| Key market parameters | No price regulation.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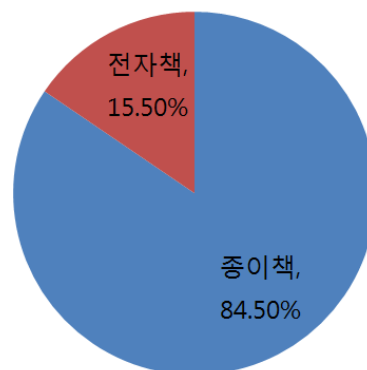
* p+e = printed and electronic

출처 : Ruediger Wischenbart(2012). The Global eBook Market.

2011년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했다. 픽션과 논픽션 분야의 전자책은 2010년 8억 6천9백만달러에서 2011년 20억 7천만달러로 성장했고, 판매량도 두배 이상 늘어나 3억 8천8백만부에 달했다. 반면에 종이책은 많이 위축되어 픽션과 논픽션 분야에서 0.5% 성장에 불과한 139억 7천만달러에 그쳤다(BISG&APP, 2012).

2011년에 미국에서 전자책 시장은 픽션과 논픽션 출판 분야에서 15.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것은 2010년의 6.4%나 3년전인 2008년의 0.6%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NewZealand Trade and Enterprise, 2012).

〈 미국의 픽션/논픽션 분야 전자책과 종이책의 시장 점유율 〉



특히 성인 픽션 분야에서 전자책은 12억 7천만달러를 차지해 3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미국출판협회는 미국 출판시장을 픽션과 논픽션 분야, 청소년분야, 종교분야, 고등교육, 유아·초등교육, 학술

도서분야로 나누고 있다.)

〈 미국의 픽션/논픽션 분야 이북 시장 규모 및 판매 부수 〉

| 구 분 | 2011 | 2010 | 비고 |
|----------|-----------|------------|-------|
| 이북 시장 규모 | 20억7천만달러 | 8억 6천9백만달러 | △238% |
| 이북 판매 부수 | 3억 8천8백만권 | 1억8천5백만권 | △210% |

출처 : BISG&APP, BookStats 2012

〈 미국 전자책의 평균 판매 가격 〉

| 연 도 | 2010 | 2009 |
|------|---------|---------|
| 평균가격 | \$ 7.72 | \$ 8.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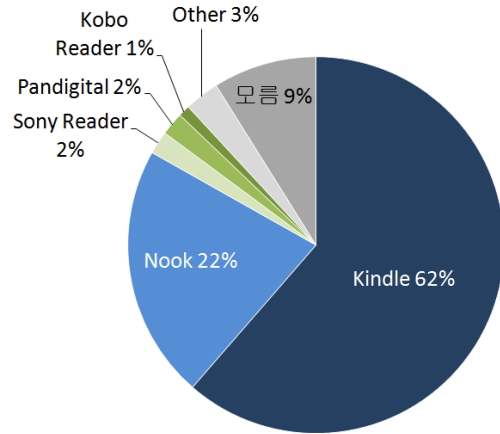
미국의 독자들은 점차 전자책으로 독서를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2011년 5월에 BISG(Book Industry Study Group)가 한 조사에 따르면, 67%의 독자들이 전자책의 구매가 늘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9개월전 48%의 독자가 전자책의 구매를 늘렸다는 답변에 비해 19%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50%의 전자책 독자가 더 이상 종이로 된 책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9개월전 45%의 전자책 독자가 더 이상 종이로 된 책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수치에 비해 5%가 늘어난 결과이다(Ruediger Wischenbart, 2012).

아마존은 미국 최대의 온라인 서점이자, 전자책 서점이다. 미국에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70%가 아마존을 이용한다. 2011년 2분기에 아마존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51% 늘어난 91억 1천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것은 미국시장에서 올린 54억 1천만달러와 유럽시장에서 올린 45억달러를 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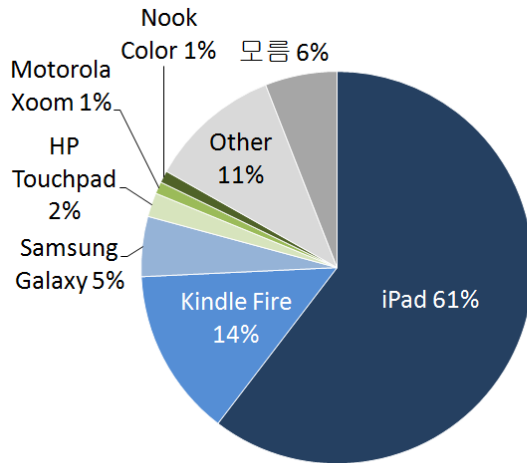
아마존 킨들 스토어(Kindle Store)에서는 95만종의 이북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11종 중 110종을 전자책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전자책 시장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있는 반스앤노블(Barnes & Noble)은 2백만종이 넘는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종이책 판매는 줄어가지만, 전자책과 전자책 단말기 누크(Nook)의 판매는 전년대비 140%의 성장을 이뤄내기도 했다(Lee Rainie, 2012).

미국에서 전자책 단말기의 시장 점유율은 2012년 2월 현재 Kindle이 62%, Nook이 22%, Sony Reader가 2% 등이다. 반면에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의 시장 점유율은 iPad가 61%, Kindle Fire 14%, SamSung Galaxy가 5%이다(ReportLinke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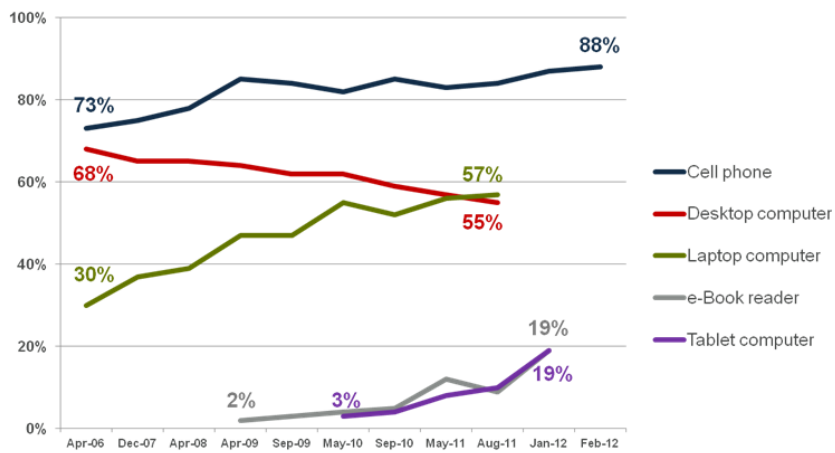
〈 미국 전자책 단말기의 시장점유률 〉



〈 미국 태블릿 PC의 시장 점유율 〉



미국 성인들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율 (2006-2012)



미국의 출판사들도 전자책 매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퍼블리셔즈 위클리 에 따르면, 미국 굴지의 출판사인 사이먼앤슈스터는 2011년 상반기 종이책의 매출액은 10%떨어졌지만 전자책 매출액은 115% 성장하였고, 펭귄출판사는 2011년 상반기 종이책 매출액은 13%떨어진 반면 전자책 매출액은 64% 늘었다고 한다.

| 출판사명 | 출판물 유형 | 2011년 상반기 | 2010년 상반기 | 증감률 |
|------------------|--------|-----------|-----------|------|
| Penguin Group | 총매출 | £457 | £493 | -7% |
| | 전자책 매출 | £64 | £39 | 64% |
| | 종이책 매출 | £393 | £454 | -13% |
| Simon & Schuster | 총매출 | \$338 | \$341 | -1% |
| | 전자책 매출 | \$56 | \$26 | 115% |
| | 종이책 매출 | \$282 | \$315 | -10% |
| Harlequin | 총매출 | C\$226 | C\$230 | -2% |
| | 전자책 매출 | C\$32 | C\$15 | 113% |
| | 종이책 매출 | C\$194 | C\$215 | -10% |

*C\$는 캐나다달러를 의미 *자료: 퍼블리셔즈 위클리

전자책 단말기나 태블릿PC로 전자책을 읽는 사용자가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책 사용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BISG가 전자책 독서 행태를 조사한 결과, 태블릿 PC로 전자책을 읽는 사용자가 2011년 5월에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또한 전자책을 구매하기 시작한 사람은 종이책 대신 전자책의 구입비중을 늘려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책 구입처로는 70%의 사용자가 구입하는 아마존이 1위, 27%가 구입하는 반스앤노블의 온라인사이트가 2위를 차지했고, 애플사의 아이북스토어와 아이튠즈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전자책을 구입하는 이들은 전자책의 가격이 상승한 점을 걸림돌로 지적한 반면, 온라인 서평보다는 책의 일부분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책 구입을 부추기는 요소라고 밝혔다.

〈 미국 독자들의 전자책 콘텐츠 구입처 〉

| 아마존 | 반스앤노블 | 아이북스/아이튠즈 |
|-----|-------|-----------|
| 70% | 27% | 3% |

출처 : publishersweekly, 2011.8.19.

나. 영국의 전자책 시장

United Kingdom

| Key indicators | Values | Sources, comments |
|--|---|--|
| Book market size (p+e, at consumer prices) | £3.1 b* | PA Statistics Yearbook 2010 |
| Titles published per year (new and successive editions) | 151,969 | PA Statistics Yearbook 2010 |
| New titles per 1 m inhabitants | 2,459 | |
| Ebook titles (available from publishers) | ca. 1m | Ebook titles available in the UK, partly from US publishers (PA Statistics Yearbook 2010) |
| Market share of ebooks | 6% | |
| Key market parameters | No price regulation; VAT: 0% for print, 20% for ebooks | |

* b = billion

출처 : Ruediger Wischenbart(2012), The Global eBook Market.

영국의 전자책 시장은 같은 영어권 국가인 미국의 영향을 받아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영국출판협회 (British Publishers Association, BPA)에 의하면, 2010년 영국 전자책 시장은 2009년 보다 38% 성장한 1억 8천만 파운드에 달하고, 이용가능한 전자책 종수는 1백만 종에 달한다. 영국에서 전자책 시장은 전체 출판 시장에서 6%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2009년에는 2%에 불과했다).

또한, 2011년에는 전체 출판 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성장했으며, 전자책 매출의 80%는 도서관 판매(B2B)에서, 20%는 개인 구매(B2C)에 의해 이루어졌다.(Informa, 2012)

영국의 전자책 시장은 학술출판과 전문 서적 분야에서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출판사로는 Taylor and Francis, Springer, Pearson, Penguin, Bloomsbury 등이 학술출판과 전문 서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중 Penguin 출판그룹은 2011년 봄의 매출액이 2010년 봄 매출에 비해 180% 성장하는 등 전자책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2011년 여름에는 해외 수출 중 14%가 전자책이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Bloomsbury도 2010년 전자책 매출이 230만달러에 달해 출판사 전체 매출 중 10%를 차지하게 되었다.

영국인들은 아직도 컴퓨터를 통해 전자책을 읽는 습성이 강하며(45%), 별도의 디지털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책을 읽는 사람 중 킨들 사용자가 14%, 소니 단말기 사용자가 6%, 아이패드 사용자가 5%, 아이폰 사용자가 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NewZealand Trade and Enterprise, 2012).

다. 독일의 전자책 시장

Germany

| Key indicators | Values | Sources, comments |
|---|--|--|
| Book market size (p+e, at consumer prices) | \$13.1 billion | ----- |
| Titles published per year (new and successive editions) | 84,000 | |
| New titles per 1 m inhabitants | 1,138 | |
| Ebook titles (available from publishers) | ca. 25,000 | Estimated ebook (trade) titles with DRM and a retail price, available through various retail channels. Amazon has announced 40,000 German titles by summer 2011; Libreka has 25,000 commercial German language titles, wholesaler Libri estimates available commercial titles in German at 80,000; titles from other platforms than Amazon are a mix of ePub (for most trade books) and PDF. |
| Market share of ebooks | 1% | Estimate (2010): 0.5%. (Source: Börsenverein/GfK, March 2011.) |
| Key market parameters | Fixed book price for printed books; VAT 7% for print, 19% for ebooks | Börsenverein lobbying for extending fixed pricing to ebooks. |

출처 : Ruediger Wischenbart(2012), The Global eBook Market.

독일의 전자책 시장도 최근에 성장하기 시작했다. 2011년 여름까지 독일에서 전자책 시장은 전체 출판시장의 1%를 차지하는 4240만 유로였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 타이틀은 2011년 상반기 2만 5천종인 것으로 알려졌다(Informa, 2012).

독일에서 전자책은 픽션분야가 인기가 있는데, 전체 판매량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기행문, 청소년, 어린이 서적은 전자책분야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다.

최근에는 독일의 주요 출판사인 Random House, the Holtzbrinck imprints, Lübbe 등이 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출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전자책에 대해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fixed book price systems)를 시행하고, 또한 종이책에 적용하고 있는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전자책엔 적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얼마전까지 전자책의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린편이다.

또한, 아직까지 독일국민들은 종이책으로 독서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2011년 초반에 이뤄진 조사에 의하면, 독일 국민들 중 78%는 화면으로 책을 읽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85%는 종이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전자책 단말기와 태블릿 PC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자책의 판매 속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독일에서 전자책의 주요 유통 채널로는 Libreka (www.libreka.de), Libri (www.libri.de), Ciando (www.ciendo.com) 등이 있다. 이 중 독일의 최대 전자책 유통채널인 Libreka는 2011년 1분기에 전자책 매출이 5만 유로에 불과했지만, 2011년 4분기에 전자책 매출이 150만 유로로 늘었다고 말했다. 1년사이 놀라운 성장을 한 것이다(Ruediger Wischenbart, 2012).

한편, 독일 최대의 서점이자 전자책의 유통도 겸하고 있는 Libri는 자사의 온라인 사이트 리브리닷컴에서 2011년 11월에 처음으로 전자책 매출이 다른 형태의 책(종이책과 오디오북 등) 판매를 앞섰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전자책 판매의 증가는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단말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2011년 1월까지 주로 이용되는 전자책 단말기는 Sony eReader가 35%를 차지하였으나, 같은해 4월 아마존의 킨들이 독일버전이 출시되어 킨들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서는 전자책단말기의 판매보다 태블릿PC 판매율 증가 속도가 훨씬 높아, 2011년 말 전자책 단말기의 판매량은 45만대에 불과한데 비해, 태블릿PC의 판매량은 210만대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태블릿PC는 독일 내 전체 PC 중 차지하는 비중이 16%가 되었다.(buchreport, December 14, 2011).

그리고, 독일에서 판매되는 전자책 단말기의 가격은 아마존 킨들이 99유로, 코보 터치(Kobo Touch)가 149유로, 소니 이리더(Sony eReader)가 149유로이다.

라. 프랑스의 전자책 시장

France

| Key indicators | Values | Sources, comments |
|---|--|--|
| Book market size (p+e, at consumer prices) | €4,600 m | 2010 estimate, based on data of Syndicat National de l'Édition (French Publishers' Association, SNE) for publishers' annual revenues. Publishers' net sales revenue at wholesale prices was 2,800 million € in 2010. |
| Titles published per year (new and successive editions) | 79,300 | SNE (figure for 2010) |
| New titles per 1 m inhabitants | 616 | 40,021 new titles published in 2010, for 65 million inhabitants (French National Statistics Institute) |
| Ebook titles (available from publishers) | ca. 75,000 | ca. 85,000 titles available, including free and public domain. |
| Publisher revenue share of ebooks | ca. 1.8% (estimate) | SNE figure for 2010, online ebooks only. The total digital book sales account for 2.5 percent of book publishers' revenue. |
| Key market parameters | Fixed book price; VAT of 7% on printed books, audio books, and ebooks (formerly 5.5% on printed books versus 19.5% on ebooks versus 19.5% on ebooks) | |

출처 : Ruediger Wischenbart(2012). The Global eBook Market.

프랑스 출판협회에 따르면, 2010년 프랑스 온라인 전자책 시장이 전체 출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달하는 4백만 유로이며, 이용가능한 전자책 종수는 7만5천종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체 디지털 도서의 출판시장 점유율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Informa, 2012).

시장 조사회사인 Les Echos는 2011년까지 프랑스에서 팔린 태블릿PC는 145만대인데, 연말에만 45만대가 팔렸다고 한다. 전자책 단말기 중 킨들(Kindle)과 코보(Kobo)는 프랑스 버전이 비교적 늦은 2011년 4분기에 런칭되어 아직까지는 판매면에서 크게 성과가 없으며, 또한, 프랑스 기업 Bookeen이

만든 전자책 단말기 Cybook Odyssey도 129유로에 팔리고 있다.

독일과 달리 프랑스는 종이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할인혜택을 2011년부터 전자책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공통적으로 5%이다(그러나 2012년 4월부터 출판분야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7%로 올라 다소 부가가치세 감소혜택이 줄게 되었다).

반면에 전자책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랑법, Loi Lang)를 201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uediger Wischenbart, 2012).

프랑스에서 전자책의 유통을 주로 담당하는 회사들은 Numilog (www.numilog.com), Eden-Livres (www.edenlivres.fr), Epagine (www.epagine.fr), Eplateforme, 1001Libraires (www.1001libraires.com), Fnac (www.fnac.fr) 등이 있는데, 이중 Numilog이 선도기업이고, Fnac와 1001Libraires이 뒤따르는 형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Fnac는 책 뿐 아니라, 음악과 영화 유통에서도 프랑스 제일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자책의 유통시장에도 적극 뛰어 들고 있다(Livres hebdo).

프랑스의 전자출판 사업 분야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구글의 글로벌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문화산업 분야의 자주권을 매우 중요시 여겨왔다. 따라서 프랑스의 출판 산업도 정치적, 문화적, 무역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국가의 보호와 지도 아래 성장해 왔다. 이러한 측면은 전자출판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출판문화 산업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출판계와 협력아래 일찍부터 도서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서둘러 왔다. 사실 범 유럽이 합심하여 추진한 유럽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인 유로피아나(Europiana) 프로젝트도 프랑스의 이러한 도서출판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의 대형 출판사가 잇따라 구글 북스 사업에 참가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프랑스 정부의 출판지식 분야 자주권 보호 정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2011년 8월에 La Martinière 출판사가 구글과 전자책 사업 계약을 맺었고, 9월엔 Albin Michel, Flammarion, and Gallimard 출판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Gallimard 출판사는 CEO가 프랑스 출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정부에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다(ReportLinker, 2012).

마. 이탈리아의 전자책 시장

이탈리아 출판협회에 의하면, 2011년 이탈리아의 출판 시장 규모는 34억 8백만 유로라고 한다. 또한, 같은 해 이탈리아에서 발행된 신간도서는 58,829종이었다.

2011년 이탈리아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책 종수는 33,000종 이었다. 이것은 2010년의 6950종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2011년 이탈리아의 전자책 시장 규모는 4백5십만 유로였는데, 2010년 1백5십만 유로의 규모에 비해 3배가까운 성장을 한 것이다(AIE: Rapporto sullo stato dell' editoria in Italia 2011, <http://bit.ly/wh4Ayg>).

Italy

| Key indicators | Values | Source, comments |
|--|-------------------------|--|
| Book market size (p+e, at consumer prices) | €3,408 million | Publishers Association |
| Titles published per year (new and successive editions) | 58,829 | Publishers Association |
| New titles per 1 m inhabitants | 977 | |
| Ebook titles (available from publishers) | 33,000 (by end of 2011) | Informazioni Editoriali and Publishers Association AIE |
| Key market parameters | | |

출처 : Ruediger Wischenbart(2012), The Global eBook Market.

비록 아직까지 이탈리아 출판시장에서 전자책의 규모는 작은 것이지만, 매우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고, 주요 출판사와 서점 관계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책의 매출이 주목할만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 아마존이 킨들을 판매하면서 전자책 시장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2011년 6월까지 이탈리아에서 전자책 단말기는 39만개 이상이 판매되었다. 이렇게 전자책 단말기의 판매가 늘어나자, 이탈리아 출판사들도 본격적으로 전자책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전자책 종수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는 Mondadori로 2011년 말에 약 2,900종의 전자책을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는 RCS/Rizzoli가 2,337종, GeMS가 1,274종, 그리고 Feltrinelli가 1,048종 순이다(Informazioni Italiani, 2012).

또한 2011년도 말까지 이탈리아에서 팔린 전자책 베스트셀러는 존 그리삼의 *contendenti*(원제는 *The Litigators*), 안드레아 카밀레아(Andrea Camilleri)의 *Il diavolo, certamente*, 지오지오 팔레티(Giorgio Faletti)의 *Tre atti e due tempi*, 그리고 카렌 스완(Karen Swan)의 *Un diamante da Tiffany* 등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자책의 가격이 종이책 보다 평균 20~30% 싼 편으로 전자책 소설의 경우 평균가격이 €6.2이고, 일반적인 전자책 가격은 평균 €10이다.(Informazioni Editoriali, for end of 2011).

이탈리아에서는 전자책에 21%의 VAT를 부과하고 있는데, 종이책이 4%의 VAT를 부과받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불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전자책에 높이 부과되고 있는 VAT는 전자책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성을 다소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전자책은 대부분 DRM 보호를 걸었고, 출판사들은 자신들이 전자책 값 결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대행 모델(*agency model*)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는 아마존 전자책 사이트와 코보의 전자책 사이트가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탈리아 출판사들이 만든 전자책 유통사이트도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eDigita (www.edigita.it)인데, 이탈리아 출판 시장을 30% 넘게 점유하고 있는 GeMS/Messaggerie, Rcs, and Feltrinelli 세 개 출판사

가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회사이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출판 그룹인 Mondadori가 Telecom Italia와 합작해서 만든 Biblet (www.biblet.it)도 전자책 사업을 위한 강력한 유통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Mondadori는 Vodafone Italy와 협력하여 “digital tablet kiosk”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책 뿐 아니라, 신문과 잡지를 통합하여 전자출판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Ruediger Wischenbart, 2012)

이외에도 이탈리아에서 전자책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스토어는 IBS.it, Feltrinelli.it, bookrepublic.it 등이 있다.

바. 일본의 전자책 시장

일본의 전자책 시장은 소니의 전자책 단말기와 애플의 아이패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덕분에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미 6, 7년 전인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전자책 시장은 휴대폰을 기반으로 매우 발달해 있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일본 베스트셀러 10위 중 휴대폰 소설이 4종이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전자책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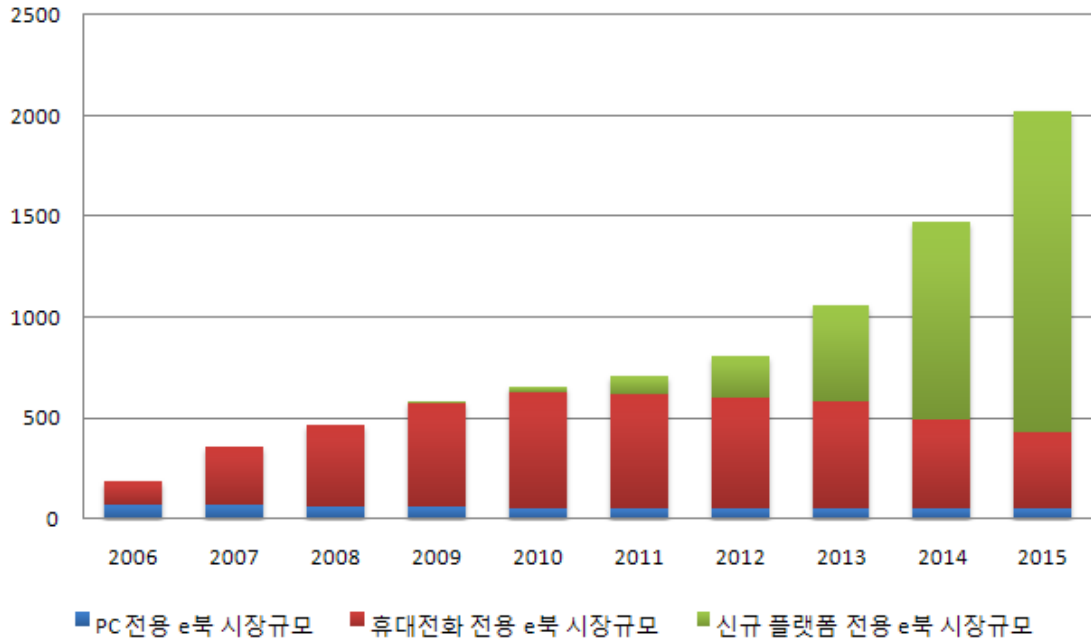
일본은 전자책 시장 중에서 디지털 만화 비중도 높아 2005년 34억, 2006년에는 약 190억 엔, 2008년 356억 엔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출판만화는 잡지만화 시장이 쇠퇴함에 따라 출판사들이 전략적으로 디지털화를 활발히 추진한 결과로 이렇게 디지털 만화시장이 성장하기도 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최근에는 휴대폰 대신 스마트폰, 전자책 단말기나 태블릿PC로 전자책을 이용하는 습관이 바뀌면서 전자책 시장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2011년에 8억 5천만달러이던 일본의 전자책 시장은 2016년에는 1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BISG&APP, 2012).

2011년 6월 일본의 정보통신 하드웨어 및 IT 서비스 사업자인 Fujitsu가 이북 스토어 ‘BooksV’를 정식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전자책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Fujitsu는 일본 출판업계 최대 사업자 중 하나인 DNP(Dai Nippon Printing) 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일본 내 최대 규모인 33만 점 이상의 콘텐츠를 확보했으며, Fujitsu 그룹 계열사 내 콘텐츠 및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자와도 공조하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 구조를 구축했다.

〈 2006~2015년 일본 전자도서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

(단위: 억 엔)



출처: Impress R&D(2011. 12.), 스트라베이스 재인용

〈 일본의 주요 전자책 서점 및 보유 콘텐츠 현황 〉

| 스토어명 | 기업명 | 보유콘텐츠 수 |
|---------------------|-------------------------|--------------------------|
| TSUTAYA GALAPAGOS | Sharp | 서적: 2만 7,213점 / 잡지: 359점 |
| Reader Store | Sony | 서적: 17,298 / 만화: 5,701 |
| Honto | 2D Focto | 비공개(약 2만여 점 추정) |
| Book Live! | Bookslive! | 약 2만 5천 점 |
| Book Place | Toshiba | 1만 5,859점 |
| LISMO Book Store | KDDI | 비공개 |
| Softbank Book Store | Softbank | 20만 점 이상 |
| BookV | Fujitsu | 33만 7,986점(특집 콘텐츠 포함) |
| Kinopyy | 키노쿠니야 서점 | 3,488점 |
| e-Book Japan | e-Book Initiative Japan | 약 4만 8천 점 |
| Papyless | Papyless | 17만 7,972점 |
| BOOK☆Walker | 카도카와 | 비공개 |
| BookGate | 코사이도 | 약 600점 |
| 지구서점 | NTT Solmare | 약 560점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해외 콘텐츠 시장조사

또한, Fujitsu측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전자책시장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단말기 확대에 편승해 급격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가운데 2014년은 1천억 엔 이상의 시장될 일본 전자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용 전자책 콘텐츠 제작에 적극 뛰어 들고 있다.

일본에서 전자책을 유통하는 주요 온라인 서점들은 아마존 저팬을 비롯하여 Seven & Y, 키노쿠니아(Book Web), 분쿄도(J-Book), 준쿠도(Junkudo Book Web), 라쿠덴 북스, 그리고 BookOne(bk1) 등이 있다(Japan Federation of Printing Industries, 2011).

사. 중국의 전자책시장

중국은 방대한 인구 덕분에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 또한 많다. 이러한 사람들이 잠재적인 전자책 시장의 독자이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 보유 인구는 2억명이 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다 휴대전화 화면으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대체적으로 휴대폰 인터넷 사용자의 43.4%가 전자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국에서도 전자책 단말기의 판매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iSuppli Corp.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자책 단말기의 판매는 2010년 360만 대에 달해 2009년의 210만 대에 비해 70.7% 증가했으며 2014년까지 중국 내 전자책 단말기 판매는 1,76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12차 경제개발 5개년이 끝나는 2015년까지는 전체 출판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을 25%까지 끌어 올릴 목표를 가지고 출판산업의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2012 Global eBook Market).

그러나, 중국의 전자책 산업은 현재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 복제 및 해킹, 그리고 전자책 표준 포맷이 무시되고 업체마다 제각각 사용하고 있는 전자책 포맷 등으로 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놓여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전자책 표준 포맷은 Apabi에서 개발한 CEB(China Ebook Format)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전자책업계는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마존 킨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책 시장 선점을 위해 전자책 단말기 및 콘텐츠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일례로 전통적 출판사인 중국출판집단공사(中国出版集团公司, China Publishing Group Ltd.)와 상해세기출판집단(上海世纪出版集团, Shanghai Century Publishing Group)도 자체 전자책 단말기를 출시하였다(China Publishing Today).

중국 최대의 이동통신사업자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 Communications Corporation (CMCC, 中国移动通信集团公司)도 한왕(漢王, Hanwang), 대당(大唐, Datang), 화웨이(华为, Huawei), 방정(方正, Founder) 등 주요 전자책 단말기 업체, 400여개 출판사 등과 협력해 2009년부터 전자책서비스를 시작해 200만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해 놓고 있다(NewZealand Trade and Enterprise, 2012)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책 단말기 제조업체 중 하나인 Hanvon은 1백만대 이상의 전자책 단말기를

팔았으며,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자책 온라인 스토어인 www.hwebook.cn에서 13만종의 전자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http://bit.ly/xWRyHn)

한편, 전자책 콘텐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출판사는 산다문학사(盛大文学, Shanda Literature Group)인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책 단말기인 Bambook과 상승작용을 하며 전자책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1년에는 회사이름을 Cloudary Corporation으로 바꾸고 더욱 공격적인 시장 확대 전략을 펴고 있는데,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온라인 문학시장에서 7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Cloudary Corporation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산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그룹(Shanda Interactive Entertainment Ltd.)의 자회사로 www.qidian.com등 독자 참여형 온라인 문학 사이트 6개와, 3개의 오프라인 출판사, 디지털 잡지사 와 오디오북 출판사 등을 거느리고 있다.

Cloudary Corporation의 온라인 문학사이트는 아마추어 작가를 포함한 저자들이 직접 올리는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2011년 중반까지 1백40만명의 저자들에 의해 5백 20만종의 온라인 문학콘텐츠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유명작가의 전자책콘텐츠 1만권 이상을 이용할 수 있다 (Ruediger Wischenbart, 2012).

이외에도 중국에서 전자책 전용 유통 채널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곳은 중국 최대 출판사인 중국출판집단공사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www.Dajianet.com 등이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아이패드 이용자가 늘어나 태블릿PC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책 이용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전자책 시장은 플랫폼 측면에서 자국의 업체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전자책 단말기 시장과, 외국 기업이 강세를 나타내는 태블릿PC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한국의 전자책 시장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전자출판산업 시장 규모를 전자책, 전자사전, 모바일북, 전문지식·학술논문·도서본문 검색, 오디오북, 솔루션, 기타 디지털출판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 전자출판산업 시장 규모는 2006년 3,393억 원, 2007년 5,110억 원, 2008년 5,551억 원, 2009년 5,786억 원, 2010년 6,908억 원, 2011년 8,328억 원으로 연평균 19.67%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ePub 전자책과 애플리케이션 전자책이 급성장하고 수입 해외저널 디지털출판물 시장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 전자출판 시장 규모 〉

(단위: 억 원, %)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연평균 성장률 |
|-------|-------|-------|-------|-------|-------|-------|---------|
| 시장 규모 | 3,393 | 5,110 | 5,551 | 5,786 | 6,908 | 8,328 | 19.67% |

출처: 한국전자출판협회(2012)

전자출판물 발간 현황의 경우 2004년 7월부터 2011 12월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전자출판물은 총 274만 3,30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종이책 단행본이 디지털로 전환된 것은 약 10만여 건으로 5% 미만이다. 반면 95%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책은 주로 전자사전, 디지털 학술논문, 저널, 데이터베이스출판물, 교육용 인터랙티브 전자출판물, 애플리케이션 전자책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고 있다. 과거 교육용 CD롬 타이틀이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재구성되어 신규 개발되는 등 단말기 유형이나 디지털출판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에 따라 콘텐츠 유형 역시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해나가고 있다.

〈 우리나라 전자책 발간 현황 〉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총계 |
|------|-------|--------|-------|---------|-----------|---------|--------|-----------|
| 총류 | 207 | 27,594 | 4,020 | 2,695 | 61,581 | 114,216 | 4,790 | 215,103 |
| 철학 | 21 | 472 | 12 | 4,406 | 38,270 | 7,569 | 234 | 50,984 |
| 종교 | 34 | 165 | 90 | 3,532 | 109,439 | 19,008 | 198 | 132,466 |
| 사회과학 | 351 | 2,862 | 132 | 34,537 | 469,610 | 53,008 | 5,131 | 565,631 |
| 순수과학 | 270 | 368 | 243 | 28,675 | 215,357 | 9,792 | 251 | 254,956 |
| 기술과학 | 256 | 1,035 | 224 | 114,886 | 800,573 | 84,118 | 8,699 | 1,009,791 |
| 예술 | 49 | 546 | 100 | 6,876 | 107,003 | 29,069 | 7,282 | 150,925 |
| 언어 | 204 | 1,665 | 177 | 10,848 | 67,330 | 6,053 | 1,674 | 87,951 |
| 문학 | 1,825 | 9,403 | 1,775 | 27,792 | 85,466 | 28,192 | 16,753 | 171,206 |
| 역사 | 64 | 919 | 214 | 12,635 | 80332 | 9,815 | 310 | 104,289 |
| 합계 | 3,281 | 45,029 | 6,987 | 246,882 | 2,034,961 | 360,840 | 45,322 | 2,743,302 |

출처: 한국전자출판협회(2012)

III. 전자책시장의 이슈와 쟁점 분석

세계 전자책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산적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독특한 출판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그동안 전자책의 발전과 확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따라서 당연히 해당국가의 출판사들도 전자책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 오지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확실히 유럽의 출판사들이 전자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상반기까지 유럽의 출판사들은 미국과 달리 종이책 위주의 전통적인 출판 시장이 급격히 디지털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흐름이 완연히 보였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부터 국내 출판시장에서 전자책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서서히 갖춰져 가더니 2011년부터는 보다 많은 출판사와 유통분야가 전자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2011년 4월 아마존이 독일에 Kindle 스토어를 설립하자, 전자책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전자책 시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그동안 종이책 위주로 성립되어 있던 각국의 출판관련 제도와 정책은 전자책 환경과는 어긋나는 경향이 많이 노출되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전자책 시장의 이슈와 쟁점을 법·제도적 측면, 디지털 도서관의 대응문제, 불법 복제문제, 유통 방식에 대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법·제도적 측면

가.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정가제 판매) 문제

유럽대륙의 많은 나라들은 종이책에 대해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와 부가가치세(VAT) 감면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전자책에 대해서는 이제도를 자동적으로 적용하진 않아 왔다. 프랑스는 도서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의 강력한 법적 근거인(랑법, Loi Lang)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전자책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다. 2011년부터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전자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2012년 1월부터 재판매가격 유지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스페인인 현재의 "출판법(Book Law)"이 종이책과 전자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아직까지 전자책의 할인판매가 허용되고 있어, 출판사와 서점의 조합체인 Börsenverein은 현재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가 전자책에도 적용될 수 있게 정부관계자를 설득하고 있다(BISG&APP, 2012).

반면에 영미권의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과 미국은 도서분야에 대해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는 전자책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책정이 얼마든지 용인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대륙(스웨덴 제외)은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출판사가 책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종이책은 유럽이 미국보다 1.5배~2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자책의 경우도 유럽대륙은 가격이 종이책 가격에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책의 제작비 정도를 뺀 10~20%의 할인이 전자책의 적정가격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음의 표는 이러한 영미권과 유럽대륙권의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과 미국,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하여 이들 국가의 종이책과 전자책 가격 할인율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먼저, 종이책의 할인율을 보면,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종이책의 평균 정가가 18.73유로와 19.49유로이고, 종이책의 평균 판매가격은 10.68유로와 11.33유로로서 평균 43%와 42%의 할인판매율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에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종이책의 평균 정가가 20.98유로와 16.35%이고, 종이책의 평균 판매가격은 19.93유로와 16.35유로로서 거의 할인판매가 허용되고 있지 않다. 프랑스는 5%의 할인이 허용되고 독일은 전혀 할인이 없었다.

그러나, 전자책의 경우는 비록 독일과 프랑스에서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전자책의 특성상 정가를 애초부터 싸게 책정해 놓고 있어 종이책에 비해 가격이 평균 21%(프랑스), 23%(독일)정도 싼 편이다. 이러한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 가격차이는 각각 9%와 11%의 차이에 불과한 영국과 미국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적으로 종이책이나 전자책의 평균 판매가격은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유럽이 훨씬 더 높았으나, 종이책 판매가격 대비 전자책 판매가격의 할인율은 유럽대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럽대륙은 많은 국가들은 전자책도 엄격한 정가제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올 1월부터 전자책의 정가제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 각국의 종이책과 전자책 베스트셀러 10위내 소설의 평균 가격 비교 (2011년 9월 첫째주 기준) >

| Country | Avg. list price (€) | Avg. discounted print price (€) | Avg. discount (%) | Avg. ebook price (€) | Avg. ebook price against discounted print price (%) |
|---------|---------------------|---------------------------------|-------------------|----------------------|---|
| UK | 18.73 | 10.68 | 43 | 9.71 | 9 |
| US | 19.49 | 11.33 | 42 | 10.13 | 11 |
| FR | 20.98 | 19.93 | 5 | 15.80 | 21 |
| DE | 16.35 | 16.35 | 0 | 12.66 | 23 |

출처 : PublishersWeekly, The Bookseller/Nielsen, Livres Hebdo/Ipsos, and Der Spiegel/buchreport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비교분석

한편, 아시아 국가에서도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는 출판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이책이나 전자책 모두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법으로 지키게 규정해 놓았고(전자책의 정가 판매는 올 7월부터 시행됨), 일본도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채택하여 전자책의 경우도 정가제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VAT) 감면 문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책은 일반 상품의 부가가치세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자책의 경우는 일반 상품의 부가가치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종이책보다는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은 편이다.

다음의 표는 대륙별 주요 국가의 종이책과 전자책의 부가가치세율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조사대상국 중 24%가 종이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종이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반 상품보다 현격히 낮게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일반상품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았다. 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전자책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을 일반 상품과 같이 적용하는 나라가 많았다. 이렇게 종이책과 전자책의 부가가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자책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 대륙별 주요 국가의 종이책과 전자책 VAT 비교 (2011년 기준) 〉

| 국가명 | | 종이책 VAT | 전자책 VAT | 일반 상품 VAT |
|-----|-------|--------------------|----------------|-----------|
| 아시아 | 호주 | 10% | 10% | 10% |
| | 중국 | 면제 또는 2~13% | 13% | 13% |
| | 인도 | 면제 | 면제 | 13.5% |
| | 인도네시아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10% | 10% |
| | 이란 | 면제 | 불명확 | 1.5% |
| | 일본 | 면제 또는 5%(분야별 차등적용) | 면제 또는 5% | 5% |
| | 한국 | 면제 | 면제 | 10% |
| | 뉴질랜드 | 15% | 15% | 15% |
| | 필리핀 | 면제 | 불명확 | 12% |
| | 싱가포르 | 7% | 7% | 7% |
| | 대만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5% | 5% |
| | 태국 | 면제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10% |
| | 베트남 | 면제 또는 5% | 면제 또는 5% | 10% |
| 유럽 | 오스트리아 | 10% | 20% | 20% |
| | 벨기에 | 6% | 21% | 21% |
| | 불가리아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20% | 20% |
| | 체코 | 10% | 20% | 20% |
| | 덴마크 | 25% | 25% | 25% |
| | 핀란드 | 9% | 23% | 23% |
| | 프랑스 | 5.5% | 5.5%(분야별 차등적용) | 19.6% |
| | 독일 | 7% | 19% | 19% |
| | 그리스 | 6.5%(분야별 차등적용) | 23% | 23% |

| 국가명 | | 종이책 VAT | 전자책 VAT | 일반 상품 VAT |
|------|----------|----------------|--------------|-----------|
| 유럽 | 헝가리 | 5% | 5%(분야별 차등적용) | 25% |
| | 아일랜드 | 면제 | 21% | 21% |
| | 이태리 | 4% | 20% | 20% |
| | 리투아니아 | 9% | 21% | 21% |
| | 네덜란드 | 6% | 6%(분야별 차등적용) | 19% |
| | 노르웨이 | 면제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25% |
| | 폴란드 | 5% | 5%(분야별 차등적용) | 23% |
| | 포르투갈 | 6% | 6%(분야별 차등적용) | 23% |
| | 루마니아 | 9% | 9%(분야별 차등적용) | 24% |
| | 러시아 | 10%(분야별 차등적용) | 18% | 18% |
| | 스페인 | 4% | 4%(분야별 차등적용) | 18% |
| | 스웨덴 | 6% | 6%(분야별 차등적용) | 25% |
| | 스위스 | 2.5%(분야별 차등적용) | 8% | 8% |
| | 터키 | 8% | 8%(분야별 차등적용) | 18% |
| 중동 | 이스라엘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16% | 16% |
| | 요르단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불확실 | 16% |
| | 레바논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10% | 10% |
| | 예멘 | 5% | 5% | 5% |
| 아프리카 | 알제리 | 7% | 17% | 17% |
| | 이집트 | 면제 | 불명확 | - |
| | 모로코 | 면제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20% |
| | 카메룬 | 면제 | 면제 | 19.25% |
| | 케냐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면제 | 16% |
| | 나이지리아 | 면제 | 불확실 | 5%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14% | 0%(분야별 차등적용) | 14% |

| 국가명 | | 종이책 VAT | 전자책 VAT | 일반 상품 VAT |
|---------|-------|--------------|--------------|-----------|
| 아메리카 대륙 | 아르헨티나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불확실 | 21% |
| | 브라질 | 면제 | 불확실 | 18% |
| | 멕시코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불확실 | 15% |
| | 페루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 19% |
| | 베네수엘라 | 면제 | 불확실 | 12% |
| | 캐나다 | 5% | 5% | 5% |

* 분야별 차등적용은 출판 장르분야별로 해당 %로 감소를 시켜주거나(면제 포함), 아니면 일반 상품의 VAT비율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IPA(2011), VAT/GST/Sales Tax Rates : Global survey on books & electronic publications

특히 유럽의 경우, 유럽위원회(EC)는 책은 제품으로 인정하지만, 전자책은 소비자가 단지 사용권을 얻어 사용하는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종이책과 전자책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전자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에 대해 유럽무역연합과 유럽출판협회(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출판협회는 전문 출판 콘텐츠(professional published content)를 담고 있는 전자책에 대해서도 종이책 만큼의 부가가치세 감세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http://bit.ly/Are0ef>).

유럽의 주요국가 중 전자책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정도이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일반 상품과 똑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는 우리나라, 일본, 인도 정도가 전자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카메룬과 케냐가 전자책에 대해서도 종이책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구글 디지털 도서관의 대응 문제

세상의 모든 책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을 디지털화려는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는 세계 곳곳에서 출판단체, 작가단체 또는 각국 정부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록 미국의 한 글로벌기업이 벌이고 있는 지식의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이지만, 일단 구글식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저작권의 심각한 침해 뿐 아니라, 지식정보의 패권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각국의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다.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인데,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국 출판문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영미권 국가의 출판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자국의 출판문화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출판정책에 대해서도 영미권 국가와는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즉, 영미권 국가의 출판정책이 개방적이고 무한 자율경쟁의 환경의 권장하고 있다면, 프랑스와 독일의 출판정책은 다소 방어적이고 일정한 질서의 구축을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은 책과 독서의 가치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은 대표적으로 도서의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을 옹호하고 있고, 자국의 출판문화를 방어하기 위하여 외부 개입을 되도록이면 배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따라서, 구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도 이들 두나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영국을 제외한 유럽지역에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또한, 구글은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구글북스로 이름을 바꾸고,

출판사나 저자와 정식 계약에 의한 전자책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되었다).

오히려 유럽지역에서는 독자적인 도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프랑스에서는 “Gallica”, 독일에 서는 “Libreka”, 범 유럽적으로는 “Europeana”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구글의 전세계적인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연합 프로젝트가 이제는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에 거의 버금가는 규모로 커졌다는 것이다(Ruediger Wischenbart, 2012).

따라서 유럽 중심으로 지식·정보 시장이 독점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다.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는 현재 저작권 문제로 크게 진척이 없으나, 구글의 전자책 서비스 사업은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유럽의 출판사들이 개별적으로 구글과 협의하여 구글 이북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1년 프랑스의 Hachette 출판이 자신들의 출판물을 구글이 디지털화하여 사용하는데 합의하였고, 다음으로 La Martinière 출판사가 구글과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정을 맺으며, 구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도 취하하였다. 또한, Gallimard, Flammarion, and Albin Michel도 2011년 말 구글에 대한 법적 소송을 취하하며 전자책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프랑스와 독일 정부를 크게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구글은 최근 프랑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출판사들과 구글 전자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서두르고 있다. 9월 초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 최초로 구글의 전자책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출판사는 웅진출판, 대교출판, 21세기북스 등이 있다.

3. 불법 복제 문제

전자책에 대한 또 다른 논란거리는 해킹에 의한 불법복제의 만연이라는 문제이다. 아직도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출판 콘텐츠를 아날로그 방법 또는 디지털 방법으로 불법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The Media Piracy Report: Media Piracy in Emerging Economies, <http://bit.ly/xUBrrK>).

특히 디지털 방식에 의한 불법복제는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불법복제보다 손쉽게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또한 불법복제가 이뤄지면 불법복제물을 단속해 폐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전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들은 대부분 전자책 출간을 꺼려왔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도 해리포터 시리즈가 처음 출간된지 15년 후, 해리포터 시리즈가 완간된 지 5년 후인 올 초에 와서나 해리포터시리즈를 전자책으로 출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자책 분야의 불법 복제가 만연하는 경향은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프랑스의 경우 2011년 초반 베스트셀러의 합법적인 전자책 제작률이 33%인데, 불법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파일로 프랑스 베스트셀러를 볼 수 있는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은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bit.ly/xOthE3>).

〈 독일 베스트셀러 소설의 불법 복제 유통 현황 (2011년 11월 기준) 〉

| Author | Top 10 Spiegel bestseller HC fiction (Nov 2011) | eBook (legal) | Audio (legal) | Pirated copy available (ePub and/or PDF) |
|---------------------------|---|----------------------|-------------------------|--|
| Paolini, Christopher | <i>Eragon—Das Erbe der Macht</i> | Kindle/Epub | MP3 CD & audio download | Yes |
| Cast, P.C.; Cast, Kristin | <i>Geweckt</i> | Kindle/Epub | Audio download | Yes |
| Heldt, Dora | <i>Bei Hitze ist es wenigstens nicht kalt</i> | Kindle/Epub/PDF | Audio download | Yes |
| Ruge, Eugen | <i>In Zeiten des abnehmenden Lichts</i> | Kindle/"Digitalbuch" | CD | Yes |
| Jonasson, Jonas | <i>Der Hundertjährige, der aus dem Fenster stieg und verschwand</i> | Kindle/Epub | CD & audio download | No |
| Gier, Kerstin | <i>Auf der anderen Seite ist das Gras viel grüner</i> | Kindle/"Ebook" | CD | No |
| Eco, Umberto | <i>Der Friedhof in Prag</i> | Kindle/Epub | MP3 CD & audio download | Yes |
| Adler-Olsen, Jussi | <i>Erlösung</i> | Kindle/Epub/PDF | CD & audio download | Yes |
| Ahern, Ceccelia | <i>Ein Moment fürs Leben</i> | Kindle/Epub | CD | No |
| Roche, Charlotte | <i>Schoßgebete</i> | Kindle/Epub | CD & audio download | Yes |

출처 : Der Spiegel/buchreport, "Top 10 Hardcover Fiction Bestseller List," November 2011, plus online research by the author.

독일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해, 앞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 11월 독일 베스트셀러 소설 10권 중 7권이 불법 복제된 ePub나 PDF 형태의 전자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불법 복제의 만연이라는 출판계의 현실이 전자책의 확산과 발전을 가로 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불법 복제 전자책의 유통은 우리나라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포렌트 사이트에 가면 수많은 디지털 출판콘텐츠 소스파일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파일은 주로 장애인용 전자도서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입력한 파일이 불법유출되어 해당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것이다. 주로 베스트셀러 위주로 내용이 입력된 이런 디지털 파일은 간단한 변환만 거치면, 전자책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단말기에 사용될 수 있다.

4. 유통 방식에 대한 문제

가. 전자책 유통 플랫폼 문제

전자책을 읽는 도구로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권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태블릿PC나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선호한다. 특히 유럽권에서는 아이패드를 중심으로 한 태블릿PC가 전자책을 읽는 도구로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유럽의 전통깊은 독서문화를 생각할 때, 책읽기에 적합한 도구인 전자책 전용단말기의 선전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아마존은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에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킨들 상품군을 판매하기 위한 치열한 마케팅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아마존은 2011년 9월 독일에서 킨들 독일버전을 런칭할 때 99유로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킨들 터치를 판매하기도 했다. 점차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유럽의 전자책 시장에서 태블릿PC와 전자책 단말기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Buchreport, <http://www.buchreport.de>)

한편, 세계 각국의 출판사와 전자책 관련 업체들의 활발한 노력 속에 점차 전자책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세계 전자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마존(Amazon), 애플(Apple), 구글(Google), 코보(Kobo) 등이다.

아마존은 이미 세계 8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종이책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점차 킨들과 킨들 태블릿을 기본 플랫폼으로 전자책 유통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애플은 아이패드이나 아이폰을 통해 전자책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은 전자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아이북스(iBooks) 서비스를 만들었으며,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마켓인 아이튠즈(iTunes)에서도 전자책 콘텐츠를 이용할 수게 서비스하고 있다.

구글은 구글 디지털 도서관 사업이 잠시 주춤한 상황이지만, 구글북스를 통해 전자책 사업을 시작했다. 구글의 전자책은 컴퓨터 뿐만 아니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소니 전자책 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스마트폰이나 전자책 단말기, 태블릿 PC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사어를 확장하고 있다.

캐나다 전자책 회사인 코보(Kobo)는 유럽의 주요 출판시장에 현지화된 전자책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론 독일의 “Libreka” 프로젝트가 코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전자책 시장을 놓고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현상은 국가별 지역별 출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프랑스와 독일은 구글과 같은 기업이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세계 지식시장은 좌지우지하려는 구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애플 등과 같은 기업이 미국의 출판 유통 방식대로 자유로운 할인판매를 시도하려는 노력에도 강력히 제동을 걸며 전자책에서도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차츰 정착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유럽대륙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출판문화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나. 유통 방식의 문제

전자책의 유통방식은 크게 도매 모델(wholesale model)과 대행 모델(agency model)으로 나뉘고 있다. 도매 모델(wholesale model)은 종이책의 온라인 판매 모델과 흡사해서 판매되는 책값의 결정은 유통사(주로 서점)가 주도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즉, 출판사가 매겨준 책값과는 상관없이 유통회사가 책의 마진율을 생각해 판매되는 책값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아마존(Amazon)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대행 모델(agency model)은 유통사는 책의 판매 공간을 제공할 뿐이며, 판매되는 책값의 결정은 출판사나 전자책 회사가 하는 방식이다. 다만, 유통사는 전자책의 판매를 대행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취하게 된다. 주로 애플(Apple)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애플은 전자책 유통대행 수수료를 판매가격의 30%를 받고 있다.

적어도 미국 시장만을 놓고 보면, 대행 모델(agency model)이 점차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대형 5개 출판사의 요구에 의해 아마존도 자신의 사이트와 단말기 이외에서는 대행 모델(agency model) 체제를 수용할 것에 합의했다. 이 모델은 출판사들이 전자책의 소매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전자책 소비자가격의 70%를

배분받으며, 애플이나 아마존 등 전자책 유통업체는 30%의 몫을 갖게 되는 구조이다(이용준, 2012).

그러나, 최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애플의 대행모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무부는 애플을 상대로 주요 출판업체들과 담합을 했다고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애플은 오히려 아마존이 출혈적인 가격 인하 정책으로 전자책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밝히는 등 전자책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최근 상황은 아마존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자책 콘텐츠의 유통방식과 이익배분 문제를 둘러싼 유통업체간에, 또는 출판사와 유통업체간의 갈등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다. 영어 도서의 이용 증가 문제

대부분의 유럽 대륙(스웨덴 제외)은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 가격에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으며, 종이책의 제작비 정도를 뺀 10~20%의 할인이 전자책의 적정가격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유럽에서는 출판계와 서점계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출판유통시장의 맥락이 심각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자책은 언어와 국경의 장벽 없이 쉽게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교육수준이 높은 전자책의 어얼리 어댑터들이 굳이 모국어 전자책만을 고집하지 않고 영어로 된 전자책도 손쉽게 구매하게 됨에 따라,

전자책의 가격은 전자책 구매에 매우 영향력있는 변화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와 고전문학일수록 독자들은 가격이 싼 전자책의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아마존은 전세계 영어책의 독자를 위해 킨들용 전자책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은 킨들 전자책 단말기용 뷰어 뿐 아니라, 아이패드용 킨들 뷰어, 아이폰용 킨들 뷰어, 안드로이드폰용 킨들 뷰어를 출시하고, 전세계 어디서나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뷰어를 통해 아마존의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를 국경을 초월하여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전자책 시대의 도래는 가격 비교를 통한 저렴한 도서의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영어도서의 소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그러자, 유럽의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서서히 자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영어도서의 가격에 대해 규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영국 작가 Katie Price가 쓴 Comeback Girl은 영국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킨들용 전자책 가격보다 독일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킨들용 전자책 가격이 176%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Ruediger Wischenbart, 2012).

이렇게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나 고전 문학의 경우 영어도서를 이용하려는 경향은 전자책 뿐만 아니라, 점차 종이책에도 확산되고 있어 외국의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던가, 아니면 아마존의 책 대여 모델을 통해 값싸게 이용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독일 출판협회는 아마존 독일의 책 대여 모델을 매우 강도높게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5. 1인 출판사의 확산과 출판사 무용론

전자책 단말기의 확산과 전자책 수요 증가는 1인 출판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촉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미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 장르문학은 전자책 플랫폼을 통한 1인 출판이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작가들도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자책을 출판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스티븐 코비가 신간을 출판사 없이 전자책으로 먼저 출간하여 화제가 됐으며, 조안 롤링도 해리포터 시리즈의 전자책을 직접 출판해 해리포터 공식사이트인 포터모어 (www.pottermore.com)에서 판매하고 있다.

저자들이 집필한 원고는 왓패드(wattpad), 스매시워드(smashword)나 룰루(lulu)등 직접출판 전자책 사이트에서 올려 출판하기도 하지만, 아마존이나 애플 등에서 제공하는 직접출판 전자책서비스를 이용하여 유통되기도 한다.

애플은 아이북스스토어에서 개인 저자들의 원고를 올려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국 세금등록번호(EIN)를 발급받고 애플 계정을 갖고 있으면 ISBN을 획득한 후 전자책 포맷인 '이펍(EPUB)' 형식의 콘텐츠를 아이북스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아마존도 1인 출판을 위한 전자책 섹션인 '싱글즈'를 운영하며 저자의 직접출판을 지원하고

있다(이용준외, 2012).

전자책 시대에 이러한 1인출판의 활성화와 이들이 출판한 전자책의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출판사의 무용론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종이책 판매량의 감소에 따라 잔뜩 움츠러들고 있는 각국의 출판사에게 위기 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6.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의 전망에 대한 논란

최근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은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자책 단말기의 보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자책 시장의 성과가 상당히 들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책 단말기의 보급 증가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자책 시장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도서산업조사그룹(BISG)에 의하면, 전자책 단말기를 보유한 사람은 전자 출판물에 쓰는 돈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자책을 편하게 구매하고 읽을 수 있는 단말기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 전자책의 구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전자책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굳건히 자리잡을 것이라는 주장이 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전자책 시장은 전자책과 궁합이 잘 맞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성장하였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전자책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교보문고의 전자책 매출은 전년보다 78% 늘어난 120억원에 달했으며, T스토어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은 2011년 전자책에서 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특히 교보문고의 경우, 전체 전자책 매출 중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된 비중이 6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렇게 전자책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자책 독서량도 늘고 있다. 최근 교보문고 독서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1 직장인 독서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책 독서량은 지난 한 해 평균 읽은 책 16권 중 2권으로 조사됐다. 전자책 독서량이 늘어나면서 파울루 코엘류의 인기소설 '브리다'는 전자책으로 내놓은 지 1년만에 1만부 이상 팔리기도 했다.

이렇게 전자책 판매량이 늘고 전자책 독서가 증가하면서 국내 전자책 시장은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여기에 전자책 단말기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전자책시장의 훈풍' 이 불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국내 전자책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영역인 전자책 콘텐츠를 둘러싸고 있는 시장 여건도 지금보다 한층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베스트셀러를 비롯하여 보다 많은 전자책 콘텐츠의 확보가 필요하다. 앞에서 미국의 상황을 언급하였지만,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자책 콘텐츠는 80만종이 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은 200만종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보문고는 11만여종, 인터파크는 7만여

종의 콘텐츠를 공급 중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은 몇천종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자책 콘텐츠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것은 출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전자책 콘텐츠의 가격 형성도 시급히 결정되어야 한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전자책 가격은 미국에 비해 높다. 미국의 전자책 가격이 평균 종이책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자책 평균 가격인 종이책 대비 70%~80%선이 적절한 가격인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자책 단말기가 가격을 낮추니 잘 팔리는 것처럼,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설이나 자기계발서, 인문서 등은 좀 더 유연한 가격으로 독자를 만나볼 필요도 있다.

세계 전자책 시장 현황, 기회와 위기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국제출판연합(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회원사에 각국의 전자책 시장의 현황, 기회와 위기요소를 질문하여 답을 취합했다. IPA의 바렐 사무총장은, 기술과 서비스, 부가세 등 비용이 재고, 인쇄와 배급비용으로 상쇄를 인정하며, 전자책이 과학의료 서적의 경우 이미 상당히 전환됐고, 전자책이 열렬한 문학독자와 전문서적에서 활황을 보이는 반면, 대중과학과 논픽션에선 저조하다며, 독자들의 성향과 선호를 파악한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스마트폰, 태블릿과 전자책 단말기의 시장확대와 낙관적인 지표와 실적이 전자책 시장의 밝은 전망을 점친 반면, 저작권 제도 미비, 해적판 규제의 기술적 어려움과 출판사, 배급사, 작가간 보상 등이 해결 과제로 지적되었다.

전자책 시장 전망의 허와 실

BISG의 조사에 의하면, 전자책이 종이출판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전자책 선호자 중 종이책 구매중단을 밝힌 응답자는 적었고, 오히려 90% 이상이 지속적인 인쇄본 구매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다양한 판본을 구입함으로써 전반적인 도서구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반면, 전자책 시장의 성장을 지나치게 낙관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뚜렷한 전자책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단말기 소유자들에 대한 설문 결과, 다음 12개월간 전자책 구입예상 권수를 5권 이하라고 한 응답자가 54.6%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책 구입에 인쇄본과 같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응답자가 19%에 불과할 뿐, 40~70% 낮은 가격일 경우 구매하겠다는 응답자가 대다수여서 향후 가격인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 한편, 단말기의 경우 가격보다 휴대성, 다수의 전자책 보유 가능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처 : thebookseller, 2011.3.14)

■ 전자책의 소비형태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

The Rise of E-Reading (PewResearch Center, April 4,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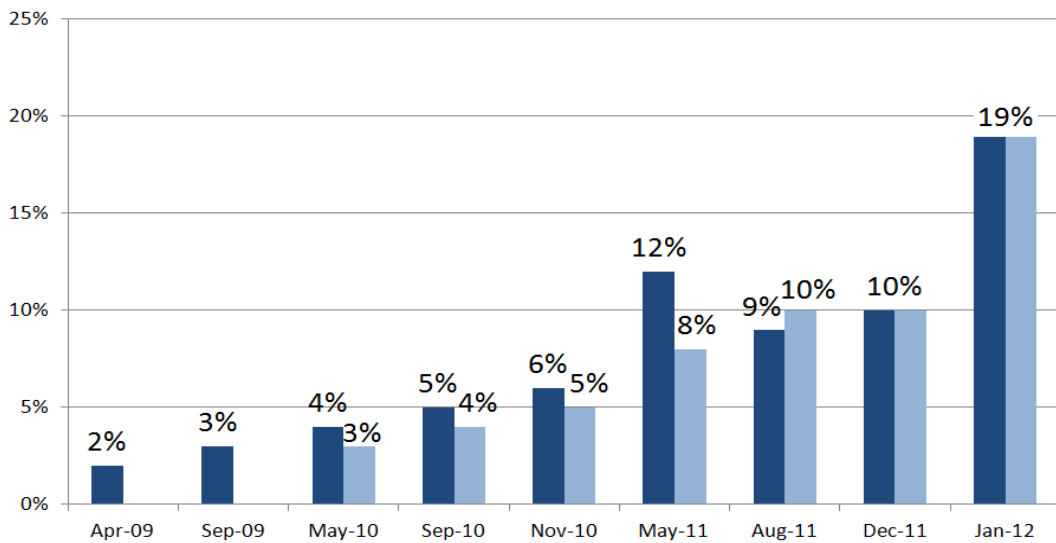
PewResearch 센터는 미국인의 독서습관, 종이책과 전자책의 소비형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성인 2,986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6일 ~ 12월 21일, 2012년 1월 5일 ~ 8일과 1월 12일 ~ 15일, 2012년 1월 20일 ~ 2월 19일 세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자책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 1) 2012년 2월, 미국의 성인(18세이상) 중 29%는 전자책 단말기나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ise of e-reading devices

29% of adults own at least one device

■ Ebook reader ■ Tab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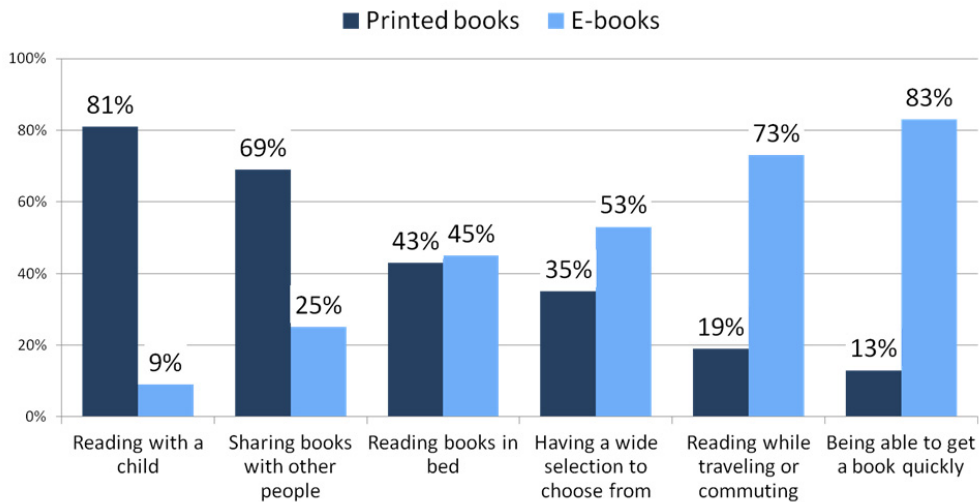


- 2) 전자책을 읽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은 1년에 24권인데 반해, 전자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은 연간 15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독서량은 연간 24권이었으며, 전자책 단말기 소유자와 태블릿PC 소유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자책 단말기의 소유자가 태블릿PC 소유자보다 전자책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나왔다.

- 3) 태블릿PC 소유자의 41%, 전자책단말기 소유자의 35%가 이전보다 독서량이 더 늘어났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의 보유기간이 길수록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전자책을 읽은 사람들 중 88%가 지난 1년사이에 종이책도 읽었으며,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은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은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에 비해 책을 빌리지 않고 구매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왔다. 즉, 종이책 이용자들은 54%가 책을 빌리는 것보다 책을 사는 것을 선호하지만, 전자책 이용자들은 61%가 책을 빌리는 것보다 책을 사는 것을 선호했다.
- 5) 종이책은 전자책보다 어린이와 함께 독서할 때, 다른 사람들과 책을 함께 보고 싶을 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책을 빨리 보고싶을 때, 여행할 때,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고를 때, 침대에서 책을 읽을 때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ch is better for these purposes, a printed book or an e-book?

% of Americans 16+ who have read both e-books and print books in the last 12 months



- 6) 미국 성인의 독서 동기를 살펴본 결과, 80%는 즐거움을 위해, 78%는 현재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74%는 특별한 토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56%는 자신의 직업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독서를 한다고 대답했다.
- 7) 전자책의 이용자를 인구통계학적으로 살펴보면, 50세 이하의 사람들, 백인들, 대학졸업자 이상, 연소득 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 전자책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8) 킨들 파이어의 태블릿PC 시장의 점유율은 2012년 1월 중순에 14%가 되었다.

< 전자책 이용자의 속성 >

Readers of e-books are more likely than other readers to 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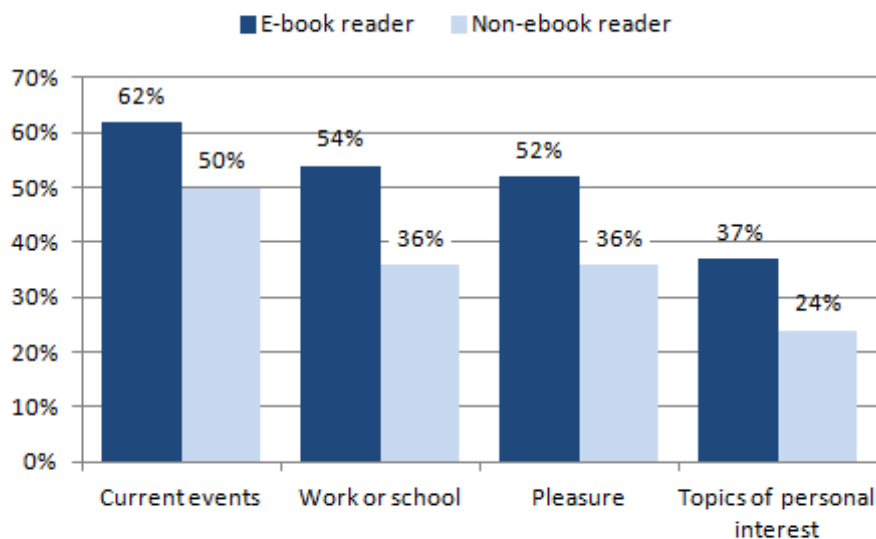
- Under age 50
- College educated
- Living in households earning \$50K+

Other key characteristics:

- They read more books, more often, and for a wider range of reasons
- More likely to buy than borrow

Readers of e-books read more frequently than others

% of Americans age 16 and older who read every day or nearly every day for these rea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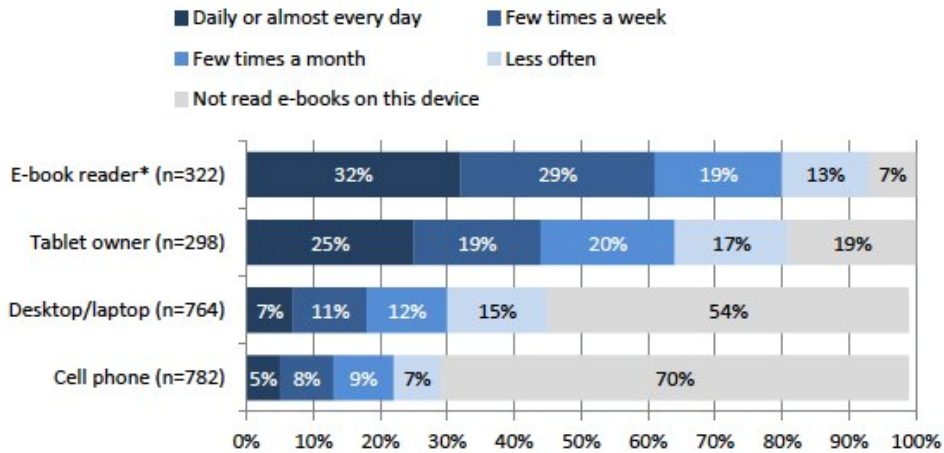


Source: Pew Research Center's Internet & American Life Reading Habits Survey, November 16-December 21, 2011.

- ▲ 전자책 이용자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 개인적 관심사를 위해 전자책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독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When you read electronic books or e-books, do you ever read them on your...?

% of owners of each device who read e-books, and how frequently they read e-books on that de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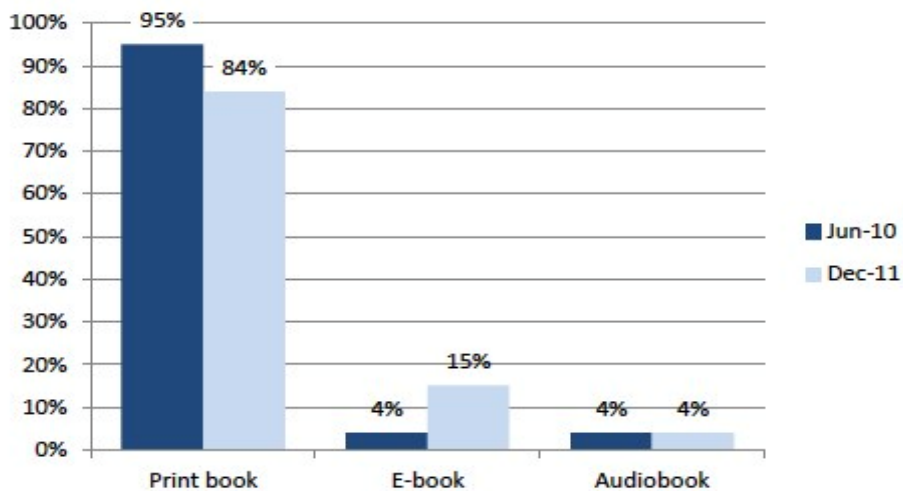


* Question was only asked of owners of each device who read e-books in general, so figures are % of those who own that device
 Source: Pew Research Center's Internet & American Life Reading Habits Survey, November 16-December 21, 2011. N=2,986 respondents age 16 and older.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English and Spanish and on landline and cells. The margin of error for the sample is +/- 2 percentage points.

- ▲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책 단말기 보유자가 전자책을 가장 자주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태블릿PC 보유자, 컴퓨터/노트북 보유자, 스마트폰 보유자의 순서로 전자책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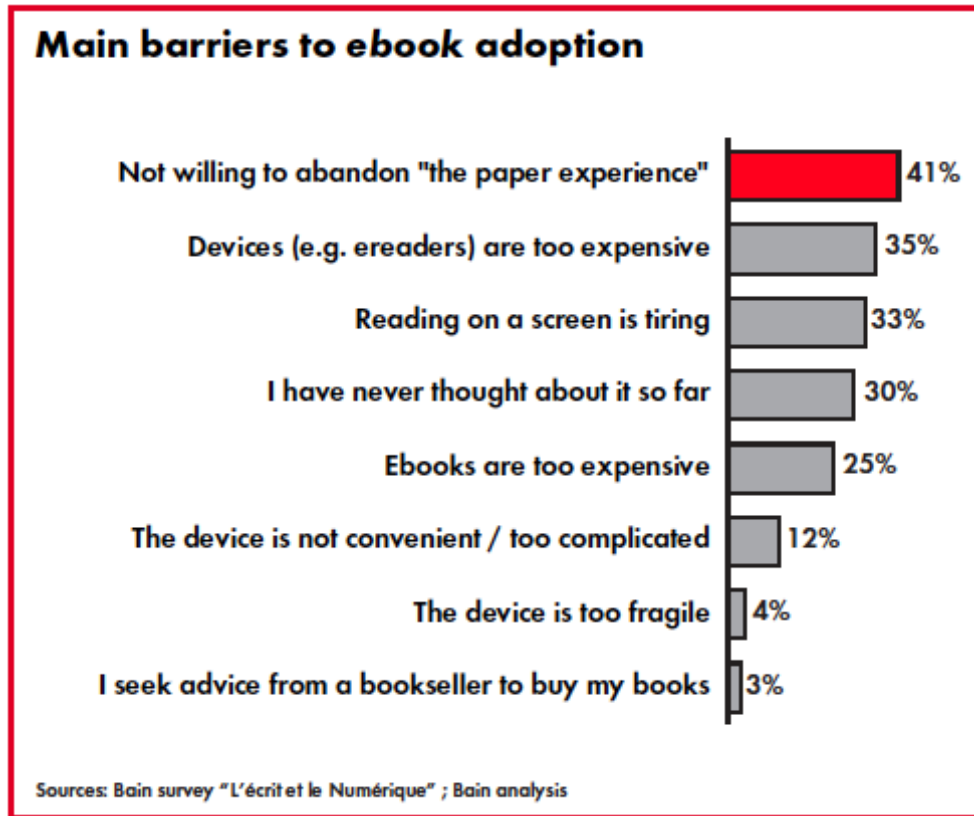
The book format used by readers on any given day is changing

% of adult book readers (age 18+) using this format on an average day, as of June 2010 and December 2011



Source: Pew Research Center Surveys.

- ▲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인은 최근에 종이책의 이용이 줄어들고(95%→84%), 전자책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4%→15%).



- ▲ 전자책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종이책 이용습관을 버리기 어려워서”가 41%, “단말기가 너무 비싸서”가 35%, “화면으로 전자책을 읽는 것이 불편해서”가 33%, “전자책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가 30%, “전자책 콘텐츠가 너무 비싸서”가 25%, “단말기의 사용법이 복잡해서” 12% 등으로 나왔다.

IV. 각국의 주요 e북 관련 업체 및 베스트셀러 현황

1. 주요 e북 관련 업체 현황

가. 세계 50대 출판사 현황

Publisher's Weekly(2012.6)에 의하면, 세계 1위의 출판사는 Pearson이며(2011년 기준), 2위는 Reed Elsevier, 3위는 Thomson Reuters이다. Pearson의 도서 판매 매출이 84억 달러이고, Reed Elsevier은 56억달러, Thomson Reuters는 54억달러이다.

새로이 세계 10대 출판사에 진입한 업체로는 독일 미디어그룹 Holtzbrinck(Macmillan의 모기업)를 들 수 있다.

경기 불황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상위권 출판사들이 전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들었으며, 예외적으로 Pearson과 Holtzbrinck가 매출액이 상승하였다.

출판사 순위를 볼 때 출판 시장에서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어느 한 국가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일본은 50위권 안에 드는 출판사가 7개, 한국은 2개를 기록하여,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 출판 시장에서 아시아출판 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 세계 50대 출판사 목록 〉

| 2011년 순위 | 2010년 순위 | 출판사명 | 국적 | 모회사명(그룹명) | 2011년 매출(백만달러) | 2010년 매출(백만달러) |
|----------|----------|-----------------------|-------|-------------------------------------|----------------|----------------|
| 1 | 1 | Pearson | 영국 | Pearson | \$8,411 | \$8,097 |
| 2 | 2 | Reed Elsevier | 영국/미국 | Reed Elsevier Corp. | \$5,686 | \$7,149 |
| 3 | 3 | Thomson Reuters | 미국 | The Woodbridge Company Ltd.(캐나다) | \$5,435 | \$5,637 |
| 4 | 4 | Wolters Kluwer | 네덜란드 | Wolters Kluwer | \$4,360 | \$4,719 |
| 5 | 6 | Hachette Livre | 프랑스 | Lagardère | \$2,649 | \$2,873 |
| 6 | 8 | Grupo Planeta | 스페인 | Grupo Planeta | \$2,304 | \$2,427 |
| 7 | 7 | McGraw-Hill Education | 미국 | The McGraw-Hill Companies | \$2,292 | \$2,433 |
| 8 | 5 | Random House | 독일 | Bertelsmann AG | \$2,274 | \$3,844 |
| 9 | 11 | Holtzbrinck | 독일 | Verlagsgruppe Georg von Holtzbrinck | \$1,952 | \$1,512 |
| 10 | 10 | Scholastic (corp.) | 미국 | Scholastic | \$1,906 | \$1,912 |
| 11 | 9 | Cengage Learning | 미국 | Apax Partners et al.(미국/캐나다) | \$1,876 | \$2,007 |
| 12 | 13 | Wiley | 미국 | Wiley | \$1,743 | \$1,699 |
| 13 | 12 | De Agostini Editore | 이태리 | Gruppo De Agostini | \$1,724 | \$1,843 |
| 14 | 15 | Shueisha | 일본 | Hitotsubashi Group | \$1,714 | \$1,597 |
| 15 | 16 | Kodansha | 일본 | Kodansha | \$1,551 | \$1,498 |

| 2011년 순위 | 2010년 순위 | 출판사명 | 국적 | 모회사명(그룹명) | 2011년 매출(백만달러) | 2010년 매출(백만달러) |
|----------|----------|--|------------|--|----------------|----------------|
| 16 | 17 | Shogakukan | 일본 | Hitotsubashi Group | \$1,444 | \$1,441 |
| 17 | 33 | Readers' Digest | 미국 | RDA Holding Co. | \$1,438 | \$1,460 |
| 18 | 14 | Houghton Mifflin Harcourt | 미국 | Education Media and Publishing Group Limited | \$1,295 | \$1,673 |
| 19 | 19 | Springer Science and Business Media | 독일 | EQT and GIC Investors(스웨덴/싱가포르) | \$1,138 | \$1,149 |
| 20 | 18 | HarperCollins | 미국 | News Corporation | \$1,100 (est.) | \$1,269 |
| 21 | 20 | Informa | 영국 | Informa plc | \$1,069 | \$1,039 |
| 22 | 21 | Gakken | 일본 | Gakken Co. Ltd. | \$1,043 | \$956 |
| 23 | 22 | Oxford University Press | 영국 | Oxford University | \$1,004 | \$941 |
| 24 | 24 | Grupo Santillana | 스페인 | PRISA | \$936 | \$852 |
| 25 | 23 | Bonnier | 스웨덴 | The Bonnier Group | \$909 | \$927 |
| 26 | 26 | Kadokawa Publishing | 일본 | Kadokawa Holdings Inc. | \$904 | \$794 |
| 27 | 27 | Simon & Schuster | 미국 | CBS | \$787 | \$791 |
| 28 | 28 | Egmont Group | (덴마크/노르웨이) | Egmont International Holding A/S(덴마크) | \$703 | \$792 |
| 29 | 29 | Woongjin ThinkBig | 한국 | Woongjin Holding | \$685 | \$723 |
| 30 | 25 | RCS Libri | 이탈리아 | RCS Media Group | \$667 | \$805 |
| 31 | 31 | Klett | 독일 | Klett Gruppe | \$594 | \$617 |
| 32 | 32 | Cornelsen | 독일 | Cornelsen | \$558 | \$584 |
| 33 | 34 | Mondadori | 이탈리아 | The Mondadori Group | \$506 | \$549 |
| 34 | 35 | GeMS – Gruppo editoriale Mauri Spagnol | 이탈리아 | Messagerie Italiane | \$494 | \$525 |
| 35 | 39 | Lefebvre Sarrut | 프랑스 | Frojal | \$467 | \$430 |
| 36 | 36 | Harlequin | 캐나다 | Torstar Corp. | \$450 | \$468 |
| 37 | 37 | Sanoma | 핀란드 | Sanoma WSOY | \$446 | \$464 |
| 37 | 40 | China Education and Media Group (form. Higher Education Press) | 중국 | China Education and Media Group | \$445 | \$393 |
| 39 | 38 | Media Participations | 프랑스 | Media Participations(벨기에) | \$442 | \$434 |
| 40 | 46 | Abril Educação | 브라질 | Abril Group | \$411 | \$308 |
| 41 | 47 | Perseus | 미국 | Perseus | \$350 | \$300 |
| 42 | 43 | Westermann Verlagsgruppe | 독일 | Medien Union (Rheinland-Pfalz Gruppe) | \$339 | \$342 |
| 43 | 41 | La Martinière Groupe | 프랑스 | La Martinière Groupe | \$335 | \$377 |
| 44 | 44 | Bungeishunju | 일본 | n.a. | \$331 | \$337 |
| 45 | 55 | AST | 러시아 | Privately owned | \$330 | \$215 |
| 46 | 45 | Groupe Gallimard | 프랑스 | Madrigall | \$329 | \$320 |
| 47 | 42 | Shinchosha | 일본 | n.a. (privately owned) | \$319 | \$364 |
| 48 | 49 | Kyowon | 한국 | Kyowon | \$298 | \$273 |
| 49 | 48 | Weka | 독일 | Weka Firmengruppe | \$282 | \$277 |
| 50 | 52 | Saraiva | 브라질 | Saraiva | \$267 | \$249 |

출처 : Publisher's Weekly

나. 주요 국가의 전자책 업체 소개

1) 미국의 주요 전자책 업체

○ Amazon Kindle

Jeff Bezos가 세운 아마존에서 만들고 있는 전자책 관련 사업을 총칭한다. 아마존에는 전자책 관련 종업원수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사는 시애틀에 있다. 최근에는 전자책 단말기인 킨들 뿐 아니라, 태블릿 PC인 Kindle Fire를 발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011년 아마존은 처음 판매기록을 공개했는데, 일주일만에 백만 개 정도의 Kindle이 팔리고 있으며, IDC 연구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e-book reader들 중에 48%가 Kindle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2010년 아마존은 미국에서 4/4 분기 e-book의 세일즈가 처음으로 페이퍼 북의 세일즈를 앞섰다고 발표해 본격적인 전자책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최근 Kindle Direct Publishing을 통해 작가나 편집자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을 Kindle이나 Kindle Apps Worldwide에 직접 출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아마존은 2011년 전자책 팔아 4조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 Apple iBooks

애플은 전자책 사업을 하기 위해 2010년 1월 iPad 발표와 함께 iBooks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0년 중반에는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iPhone 및 iPod Touch에서도 iBooks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처음에는 미국 지역에만 한정하여 서비스되었으나, 이후 2010년 5월 28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위스, 영국에서의 iPad 출시일과 맞추어 iBook 서비스도 글로벌 서비스로 발전시켰다.

현재 애플은 미국시장 뿐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아마존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자책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 Google Edition

2009년에 론칭된 구글의 온라인 e-Book 스토어임. Google의 스토어는 특정 기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 구글에서 구입된 전자책은 다양한 전자도서 리더 기기들에서 읽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글 전자책의 최대 장점은 구글 북스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이 불분명한 70%의 도서들로, 향후 전자책으로 제공되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구글북스에 등록된 도서들로 전자책 서비스가 되는 것은 도서 권리 등록기관(Book Rights Registry)에서 매출의 63%를 수익으로 떼면, 이 수익은 다시 원 저작권자가 아닐 수도 있는 출판사나 작가들에게 재분배 되도록 되어 있다.

○ Netlibrary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소속의 온라인 출판 사업부로서 미국 주요 출판사들과 연계하여 텍스트 기반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CLC는 1967년 설립된 비영리 회원제 도서관 S/W프로그램 개발 업체이자, 리서치 기관이다.

○ Safari

O'Reilly Media와 Pearson Technology Group의 합작회사로 2001년 7월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서비스인 Safari Tech Books Online을 통해 IT 기반의 전자책 출판 기술 라이선스를 전세계 50여개 주요 도서관, 대학,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 Audible.com

미국 온라인 오디오북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신문, 잡지,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개발한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오디오북, 공연실황,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포브스와 같은 유명 신문과 잡지,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자기계발 콘텐츠, 어학 학습, 아동용 오디오, 유명인들의 연설 등이 주된 콘텐츠이다. 미국 이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플의 아이튠즈 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McGraw-Hill

맥그로우힐은 1888년 설립된 금융, 교육, 비즈니스 정보출판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 기업은 크게 세가지 비즈니스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1) McGraw-Hill Educaion, 2) The Financial Srevice Group, 3) The Information and Media Service Group 등이 있다. 첫째, McGraw-Hill Educaion은 다양한 분야의 책, 교구, 기타 보충 교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분야는 다시 ▷School Education Group과 ▷ Higher Education, Professial and International Group으로 분리되어 있다. McGraw-Hill Educaion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사 중 하나이며, 맥그로우힐 그룹 전체에서 46%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The Financial Srevice Group은 국제 신용도 평가 기관인 Standard&Poors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자, 기업, 정부 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The Information and Media Service Group은 비즈니스 전문 잡지인 BusinessWeek를 운영하며, 항공, 에너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유럽의 주요 전자책 업체

○ Bookeen

프랑스의 전자책회사로 Laurent Picard와 Michaël Dahan이 설립했다. 2007년 초부터 E-Ink screen을 사용한 첫 전자책 단말기인 Cybook Gen3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새 상품 Cybook Opus를 발표했는데, 이 제품은 이전 제품보다 더 소형 버전이지만 디자인, 가속도계, 메모리, CPU 등 향상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http://www.bookeen.com/ebooks> 사이트를 통해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전자책 판매 사이트들로 링크할 수 있다.

○ Ciando GmbH

2002년에 설립된 e-Book회사로 독일어권에서 선도적 e-Book 리테일러 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 Springer, Haufe, Hanser 등의 450개 퍼블리셔로부터 약 3만 5천 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회사의 전자책은 EPUB, PDF 및 기타 e-reader 포맷을 지원하며, 다운로드 방식 외에도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e-Book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소설이나 전문서적에 관계없이 구매한 책은 두 번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Pearson

세계적인 출판 미디어 그룹으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계열사로는 Pearson Education(프린트, 이러닝), Penguin Group(출판), Financial Times Group(FT신문, Economist, FT.co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earson Education 내에는 IT와 비즈니스 부분의 전문가를 위한 책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Pearson Technology Group이 있다. 피어슨 테크놀로지 그룹에는 Addison-Wesley, New Riders, Prentice Hall, Cisco Press 등이 있다. Pearson은 영국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에서 1위의 도서 출판사이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2위로 랭크되고 있다.

피어슨의 기업전략은 1) 전문 출판사업 강화 2) 온라인 매출 확대에 요약할 수 있다. 그룹내 전문 출판 사업은 PTG가 주로 담당하며, Pearson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Macmillan 컴퓨터 출판과 Prentice Hall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수준의 컴퓨터 과학 분야의 출판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Benjamin Cummings와 Addison-Wesley는 공학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어, 이 부분의 출판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피어슨은 PTG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Reed Elsevier

세계 최대의 전문 정보 퍼블리셔로, 핵심 사업 분야는 과학, 의학, 법률, 리스크관리,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 정보 솔루션이며, 주된 활동 지역은 유럽과 북미이다. Reed Elsevier는 Reed Elsevier PLC와 Reed Elsevier NV, 두 개의 모기업을 갖고 있으며, Reed Elsevier NV는 Reed Elsevier 의 50%를 소유하고 있다.

비즈니스 세그먼트는 크게 과학 및 의학 출판 부문(Elsevier), 법률 및 기타 전문 부문(LexisNexis), 전시회 및 컨퍼런스 부문(Reed Exhibitions), 비즈니스 정보 및 트레이드 잡지 부문(Reed Business Information)으로 나뉘어 있다.

2. 주요 국가의 종이책과 전자책 베스트셀러 목록

가. 미국의 베스트셀러 목록

2011년에 아마존에서 팔린 전자책 베스트셀러 1위는 Help가 차지했고, 2위는 헝거게임이 차지했다. 판매 가격은 대체적으로 9.99달러 전후였다.

〈 2011년 Amazon e-Book Bestseller 〉

| 순 위 | 도 서 명 | 저 자 | 가 격 |
|-----|--|---|---------|
| 1 | The Help | Kathryn Stockett | \$9.99 |
| 2 | The Hunger Games | Suzanne Collins | \$5.00 |
| 3 | Catching Fire (The Second Book of the Hunger Games) | Suzanne Collins | \$5.99 |
| 4 | Mockingjay (The Final Book of The Hunger Games) | Suzanne Collins | \$5.99 |
| 5 | Heaven is for Real: A Little Boy's Astounding Story of His Trip to Heaven and Back | Todd Burpo, Sonja Burpo, Colton Burpo, Lynn Vincent | \$4.98 |
| 6 | Unbroken: A World War II Story of Survival, Resilience, and Redemption | Laura Hillenbrand | \$12.99 |
| 7 | The Girl with the Dragon Tattoo: Book 1 of the Millennium Trilogy | Stieg Larsson, Reg Keeland | \$9.99 |
| 8 | The Girl Who Kicked the Hornet's Nest: Book 3 of the Millennium Trilogy | Stieg Larsson, Reg Keeland | \$9.99 |
| 9 | The Mill River Recluse | Darcie Chan | \$2.99 |
| 10 | The Lincoln Lawyer: A Novel (Mickey Haller) | Michael Connelly | \$7.99 |
| 11 | Water for Elephants: A Novel | Sara Gruen | \$4.99 |
| 12 | The Girl Who Played with Fire (Millennium Trilogy, Book 2) | Stieg Larsson, Reg Keeland | \$9.99 |
| 13 | The Litigators | John Grisham | \$14.99 |
| 14 | Steve Jobs | Walter Isaacson | \$14.99 |
| 15 | A Game of Thrones: A Song of Ice and Fire: Book One | George R.R. Martin | \$8.99 |
| 16 | The Abbey (Ash Rashid) | Chris Culver | \$2.99 |
| 17 | A Stolen Life | Jaycee Dugard | \$11.99 |
| 18 | Bossypants | Tina Fey | \$12.99 |
| 19 | The Paris Wife: A Novel | Paula McLain | \$12.99 |
| 20 | Saving Rachel (a Donovan Creed Crime Novel) | John Locke | \$2.99 |

2012년 상반기 종이책 베스트셀러는 E.L. 제임스의 Fifty Shades of Grey였다. E.L. 제임스의 책은 모두 3권이 베스트셀러 20위 내에 올랐다. 그러나, 상반기에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는 Suzanne Collins로, 모두 6권이 베스트셀러 20위내에 들어왔다.

〈 2012년 상반기 종이책 베스트셀러 〉

| 순위 | 도 서 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Fifty Shades of Grey | E.L. James | Vintage |
| 2 | The Hunger Games | Suzanne Collins | Scholastic |
| 3 | Fifty Shades Darker | E.L. James | Vintage |
| 4 | Catching Fire | Suzanne Collins | Scholastic |
| 5 | Fifty Shades Freed | E.L. James | Vintage |
| 6 | Mockingjay | Suzanne Collins | Scholastic |
| 7 | The Hunger Games 2 | Suzanne Collins | Scholastic |
| 8 | The Hunger Games 3 | Suzanne Collins | Scholastic |
| 9 | The Hunger Games Trilogy | Suzanne Collins | Scholastic |
| 10 | Jesus Calling: Enjoying Peace | Sarah Young | Integrity |
| 11 | Diary of a Wimpy Kid: Cabin Fever | Jeff Kinney | Amulet |
| 12 | Killing Lincoln | Bill O' Reilly | Henry Holt |
| 13 | The Serpent's Shadow | Rick Riordan | Hyperion |
| 14 | Heaven Is for Real | Todd Burpo | Thomas Nelson |
| 15 | The Lorax | Dr. Seuss | Random House Children's Books |
| 16 | StrengthsFinder 2.0 | Tom Rath | Gallup Press |
| 17 | The Lucky One | Nicholas Sparks | Grand Central |
| 18 | American Sniper | Chris Kyle | William Morrow |
| 19 | Calico Joe | John Grisham | Doubleday |
| 20 | Oh, the Places You'll Go! | Dr. Seuss | Random House Children's Books |

출처 : Nielsen BookScan

한편, 2012년 상반기 아마존의 전자책 베스트셀러는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E.L. 제임스의 Fifty Shades of Grey였다. E.L. 제임스의 책은 종이책과 같이 모두 3권의 전자책이 베스트셀러 20위내에 올랐으며, 반면에 Suzanne Collins의 책은 4권만이 전자책 베스트셀러 20위내에 들었다.

닐슨 북스캔에서 집계한 종이책 베스트셀러 20위와 아마존에서 집계한 전자책 베스트셀러 20위의 일치율은 50%였다.

〈 2012년 상반기 Amazon e-Book Bestseller 〉

| 순위 | 도 서 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Fifty Shades of Grey | E.L. James | Vintage |
| 2 | The Hunger Games | Suzanne Collins | Scholastic |
| 3 | Catching Fire | Suzanne Collins | Scholastic |
| 4 | Mockingjay | Suzanne Collins | Scholastic |
| 5 | Fifty Shades Darker | E.L. James | Vintage |
| 6 | Fifty Shades Freed | E.L. James | Vintage |
| 7 | The Hunger Games Trilogy | Suzanne Collins | Scholastic |
| 8 | The Marriage Bargain | Jennifer Probst | Entangled |
| 9 | The Lucky One | Nicholas Sparks | Grand Central |
| 10 | Fifty Shades Trilogy | E.L. James | Vintage |
| 11 | Defending Jacob | William Landay | Delacorte |
| 12 | Gone Girl | Gillian Flynn | Crown |
| 13 | The Innocent | David Baldacci | Grand Central |
| 14 | Extremely Loud and Incredibly Close | Jonathan Safran Foer | Houghton Mifflin Harcourt |
| 15 | The Help | Kathryn Stockett | Berkley |
| 16 | A Game of Thrones | George R.R. Martin | Bantam |
| 17 | The Girl Who Kicked the Hornet's Nest | Stieg Larsson | Vintage |
| 18 | Beautiful Disaster | Jamie McGuire | Jamie McGuire |
| 19 | The Witness | Nora Roberts | Putnam |
| 20 | 11th Hour | James Patterson | Little, Brown |

출처 : <http://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industry-news/bookselling>

나. 영국의 베스트셀러 목록

〈 2011년 영국 베스트셀러 목록 〉

| 순위 | 도 서 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Guinness World Records 2012 | | Guinness |
| 2 | Diary of a Wimpy Kid: Cabin Fever | Jeff Kinney | Puffin Books |
| 3 | Inheritance: Book Four | Christopher Paolini | Doubleday Children's Books |
| 4 | Jamie's Great Britain | Jamie Oliver | Michael Joseph |
| 5 | The Life of Lee | Lee Evans | Michael Joseph |
| 6 | The Fifth Witness | Michael Connelly | Orion |
| 7 | Gangsta Granny | David Walliams | HarperCollins Children'sBooks |
| 8 | River Cottage Veg Every Day! | Hugh Fearnley-Whittingstall | Bloomsbury |
| 9 | The World of Downton Abbey | Jessica Fellowes | Collins |
| 10 | Beano Annual:2012 | | D.C. Thomson & Co. |

출처: Nielsen Bookscan

〈 2011년 영국 픽션분야 베스트셀러 목록 〉

| 순위 | 도 서 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The Fifth Witness | Michael Connelly | Orion |
| 2 | The Faithless | Martina Cole | Headline Book Publishing |
| 3 | Snuff: Discworld Novel | Terry Pratchett | Doubleday |
| 4 | Christmas Wishes | Katie Flynn | Arrow Books |
| 5 | Don't Blink | James Patterson | Arrow Books |
| 6 | The Help | Kathryn Stockett | Penguin Books |
| 7 | 11.22.63 | Stephen King | Hodder & Stoughton Ltd |
| 8 | The Payback | Simon Kernick | Corgi Books |
| 9 | Death Comes to Pemberley | P.D. James | Faber and Faber Crime |
| 10 | The Sixth Man | David Baldacci | Pan Books |

출처: Nielsen Bookscan

2011년 영국 전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은 Guinness World Records 2012이었고, 2위는 Diary of a Wimpy Kid:Cabin Fever(Jeff Kinney), 3위는 Inheritance: Book Four(Christopher Paolini)이었다.

또한, 2011년 영국 소설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은 Michael Connelly의 The Fifth Witness였고, 2위에 오른 책은 The Faithless(Martina Cole), 3위는 Snuff: Discworld Novel(Terry Pratchett)였다.

반면에 2011년 영국의 논픽션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은 Guinness World Records 2012, 2위에 오른 책은 Jamie's Great Britain(Jamie Oliver), 3위에 오른 책은 The Life of Lee(Lee Evans)였다.

〈 2011년 영국 논픽션분야 베스트셀러 목록 〉

| 순위 | 도 서 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Guinness World Records 2012 | | Guinness |
| 2 | Jamie's Great Britain | Jamie Oliver | Michael Joseph |
| 3 | The Life of Lee | Lee Evans | Michael Joseph |
| 4 | River Cottage Veg Every Day! | Hugh Fearnley-Whittingstall | Bloomsbury |
| 5 | The World of Downton Abbey | Jessica Fellowes | Collins |
| 6 | Home Cooking Made Easy | Lorraine Pascale | Harper Collins |
| 7 | Ripley's Believe It or Not! 2012 | Robert Le Roy Ripley | Random House Books |
| 8 | Steve Jobs:The Exclusive Biography | Walter Isaacson | Little, Brown |
| 9 | Frozen Planet | (Alastair Fothergill, & Vanessa Berlowitz, Vanessa) | BBC Books (Random House) |
| 10 |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 James Corden | Century |

출처: Nielsen Bookscan

2011년 영국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1위는 Boyd Brent의 Harley's Strongroom였다. 대체적으로 영국의 전자책은 로맨스 소설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로맨스 소설 작가인 Diane Darcy는 베스트셀러 10위에 3권의 작품을 올려놓아 최고의 전자책 작가로 자리잡았다. 영국 전자책 베스트셀러의 판매 가격은 2~3파운드가 가장 많았다.

〈 2011년 영국 아마존 전자책 베스트셀러 목록 〉

| 순위 | 도 서 명 | 저 자 | 가 격 |
|----|--|-------------------------------|-------|
| 1 | Harley's Strongroom | Boyd Brent | £2.16 |
| 2 | Shakedown | Joel Goldman | £2.60 |
| 3 | Older, not wiser but definitely single | Siobhan Cooper | £2.52 |
| 4 | Achieve Anything In Just One Year | Jason Harvey | £6.41 |
| 5 | Aleph | Paulo Coelho | £3.99 |
| 6 | Steal His Heart | Diane Darcy | £2.62 |
| 7 | A Penny for Your Thoughts | Diane Darcy | £2.65 |
| 8 | Serendipity | Diane Darcy | £2.64 |
| 9 | Best sellers 2011 | Cyrille Richard, Arnaud Papin | £7.86 |
| 10 | Author Watch | The Write Agenda | £1.91 |

다. 독일의 베스트셀러 목록

〈 독일 대중문학 베스트셀러 순위 (2012년 1월) 〉

| 순위 | 도 서 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Der Hundertjährige, der aus dem Fenster stieg und verschwand | Jonas Jonasson | Carl's Books |
| 2 | Warrior Cats: Dämmerung | Erin Hunter | Beltz |
| 3 | Gregs Tagebuch -Keine Panik! | Jeff Kinney | Baumhaus |
| 4 | Aleph | Paulo Coelho | Diogenes |
| 5 | Bei Hitze ist es wenigstens nicht kalt | Dora Heldt | dtv |
| 6 | In Zeiten des abnehmenden Lichts | Eugen Ruge | Rowohlt |
| 7 | Gregs Tagebuch 3 - Jetzt reich's! | Jeff Kinney | Baumhaus |
| 8 | Auf der anderen Seite ist das Gras viel grüner | Kerstin Gier | Bastei Lübbe |
| 9 | Erlösung | Jussi Adler-Olsen | dtv |
| 10 | Gregs Tagebuch 4 - Ich war's nicht! | Jeff Kinney | Baumhaus |

출처: www.boersenblatt.net

〈 독일 청소년 문학 베스트셀러 순위 (2011년 11월) 〉

| 순위 | 도 서 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Gregs Tagebuch -Keine Panik! | Jeff Kinney | Baumhaus |
| 2 | Eragon Das Erbe der Macht | Christopher paolini | cbj |
| 3 | Gregs Tagebuch Von Idioten umzingelt! | Jeff Kinney | Baumhaus |
| 4 | Gregs Tagebuch 3 - Jetzt reicht's! | Jeff Kinney | Baumhaus |
| 5 | Gregs Tagebuch 5 - Geht's noch | Jeff Kinney | Baumhaus |
| 6 | Gregs Tagebuch 2 - Gib'ts Probleme? | Jeff Kinney | Baumhaus |
| 7 | Gregs Tagebuch 4 - Ich war's nicht! | Jeff Kinney | Baumhaus |
| 8 | House of night - Verbrannt | P. C Cast/ Kristin Cast | Fischer FJB |
| 9 | House of night - Geweckt | P. C Cast/ Kristin Cast | Fischer FJB |
| 10 | Saeculum | Ursula poznanski | Loewe |

출처: www.boersenblatt.net

라. 중국의 베스트셀러 목록

2011년 12월 중국의 소설분야 베스트셀러 1위는 〈小时代 3.0: 刺金时代〉였고, 2위는 〈百年孤独〉, 3위는 〈侯卫东官场笔记 8〉였다. 소설분야 베스트셀러 10위 중 '귀징밍'의 작품이 4권이나 차지했으며, 2권이 번역서였다. 〈小时代〉시리즈는 3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소설분야 베스트셀러의 정가는 25.00위안 ~ 39.80위안 사이에 위치했으며, 평균 정가는 32.40위안이었다.

〈 중국 소설분야 베스트셀러 순위 (2011년 12월) 〉

| 순위 | 도 서 명 | 출 판 사 | 저 자 | 정 가 (위안) |
|----|---------------|----------------|---------------|-------------|
| 1 | 小时代 3.0: 刺金时代 | 장강문예 출판사 | 귀징밍 | 32.80 |
| 2 | 百年孤独 | 난하이 출판공사 | 가브리엘가르시아 마르케스 | 39.50 |
| 3 | 侯卫东官场笔记 8 | 장수봉황문예 출판사 | 샤오차오라우수 | 29.90 |
| 4 | 刀尖 刀之阳面 | 베이징연합출판 유한책임공사 | 마리차 | 29.80 |
| 5 | 失恋 33天 | 중신출판 주식유한공사 | 파오징징 | 25.00 |
| 6 | 小时代 2.0: 虚铜时代 | 장강문예 출판사 | 귀징밍 | 39.80 |
| 7 | 杜拉拉大结局: 与理想有关 | 후난문예 출판사 | 리커 | 32.80 |
| 8 | 最后我们留给世界的 | 장강문예 출판사 | 귀징밍 | 39.80 |
| 9 | 丝之屋 | 장수역림 출판사 | 앤토니 호로위츠 | 29.80 |
| 10 | 小时代 1.0: 折纸时代 | 장강문예 출판사 | 귀징밍 | 29.80 |

출처: 出版商務週報, <http://www.cptoday.com.cn/UserFiles/News/2011-12-21/53022.html>

2011년 12월 중국의 비소설분야 베스트셀러 1위는 〈史蒂夫 乔布斯传〉였고, 2위는 〈青春〉, 3위는 〈朱镕基讲话实录1〉였다. 비소설분야 베스트셀러 10위 중 ‘인민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 4권이나 차지했으며, 1권이 번역서였다. 〈朱镕基讲话实录〉시리즈는 4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비소설분야 베스트셀러의 정가는 28.00위안 ~ 68.00위안 사이에 위치했으며, 평균 정가는 48.00위안으로 소설분야의 평균정가보다 높았다.

〈 중국 비소설분야 베스트셀러 순위 (2011년 12월) 〉

| 순위 | 도 서 명 | 출판사 | 저 자 | 정 가 (위안) |
|----|------------|-----------|---------|----------|
| 1 | 史蒂夫 乔布斯传 | 중신출판 유한공사 | 월터 아이작슨 | 68.00 |
| 2 | 青春 | 후난인민 출판사 | 한한 | 29.00 |
| 3 | 朱镕基讲话实录1 | 인민 출판사 | 편집부 | 49.00 |
| 4 | 朱镕基讲话实录4 | 인민 출판사 | 편집부 | 49.00 |
| 5 | 于丹趣品人生 | 중신출판 유한공사 | 위단 | 29.80 |
| 6 | 好妈妈胜过好老师 | 작가 출판사 | 인젠리 | 28.00 |
| 7 | 朱镕基讲话实录2 | 인민 출판사 | 편집부 | 49.00 |
| 8 | 朱镕基讲话实录3 | 인민 출판사 | 편집부 | 49.00 |
| 9 | 货币战争4：战国时代 | 장강문예 출판사 | 양란 | 32.00 |
| 10 | 龙年 运程 | 시위엔 출판사 | 인젠리 | 28.00 |

출처: 出版商務週報, <http://www.cptoday.com.cn/UserFiles/News/2011-12-21/53022.html>

마. 한국의 베스트셀러 목록

2011년 교보문고 종이책 베스트셀러 1위는 김난도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차지했다. 2위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3위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차지했다. 베스트셀러 20위 내에 외국번역서가 6종을 차지해 2011년도 번역서의 강세가 유지되었다. 흥미롭게도 해커스어학연구소가 토익책으로 20위권에 3권이 랭크되어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출판사가 되었다.

〈 2011년 교보문고 종이책 베스트셀러 순위 〉

| 순위 | 도 서 명 | 출판사 | 저 자 | 정 가 |
|----|-----------------------|--------|----------|---------|
| 1 | 아프니까 청춘이다 | 쌤앤파커스 | 김난도 | 14,000원 |
| 2 | 정의란 무엇인가 | 김영사 | 마이클 샌델 | 15,000원 |
| 3 | 엄마를 부탁해 | 창비 | 신경숙 | 10,000원 |
| 4 |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스토리 콜렉터 2) | 북로드 | 벨레 노이하우스 | 13,900원 |
| 5 | 도가니 | 창비 | 공지영 | 10,000원 |
| 6 | 스티브 잡스 | 민음사 | 월터 아이작슨 | 25,000원 |
| 7 | 생각 버리기 연습 | 21세기북스 | 코이케 류노스케 | 12,000원 |
| 8 | 닥치고 정치 | 푸른숲 | 김여준 | 13,500원 |

| 순위 | 도 서 명 | 출 판 사 | 저 자 | 정 가 |
|----|-----------------------------|----------|-----------|---------|
| 9 | 자기혁명 | 리더스북 | 박경철 | 16,000원 |
| 10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부키 | 장하준 | 14,900원 |
| 11 | 종이 여자 | 밝은세상 | 기욤 뮈소 | 12,000원 |
| 12 |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 | 여백미디어 | 최인호 | 12,900원 |
| 13 | 해커스 토익 READING(개정판) | 해커스어학연구소 | David Cho | 18,800원 |
| 14 |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홍익출판사 | 고도원 | 13,800원 |
| 15 | 해커스 토익 보카 | 해커스어학연구소 | David Cho | 12,900원 |
| 16 | 이 세상 살지 말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 가서 살자 | 참출판사 | 우명 | 12,000원 |
| 17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 열린책들 | 베르나르 베르베르 | 15,900원 |
| 18 | 운명(문재인의) | 가교 | 문재인 | 16,000원 |
| 19 | 해커스 토익 스타트 READING | 해커스어학연구소 | David Cho | 14,900원 |
| 20 | 리딩으로 리드하라 | 문학동네 | 이지성 | 15,000원 |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연도별 전자책 베스트셀러의 순위를 내는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교보문고의 누적 집계 전자책 베스트셀러 순위를 살펴보았다.

1위는 나라원의 < 3분 안에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기술>이 차지했고, 2위는 우라야마 아키토시의 < 어른들을 위한 안델센 동화>, 3위는 유머동호회의 <유머 총전소>가 차지했다.

〈 교보문고 누적집계 전자책 베스트셀러 순위 〉

| 순위 | 도 서 명 | 출 판 사 | 저 자 | 종이책 출간일 |
|----|---------------------------|---------|--------------|------------|
| 1 | 3분 안에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설득기술 | 석세스 라이프 | 나라원 | 2005.09 |
| 2 |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동화 | 대교베텔스만 | 우라야마 아키토시 | 2004.03 |
| 3 | 유머 총전소 | 매월당 | 유머동호회 편집부 | 2007.07 |
| 4 | 은교 | 문학동네 | 박범신 | 2010.04 |
| 5 | 워렌 버핏 | 김&정 | 하지혜 | 2006.10 |
| 6 | 악마의 연애술 | 새움 | 나비 | 2010.03 |
| 7 | 김과장, 만화로 영어고수되다! -초짜편 | 리치바닐라 | Terry E. Kim | 2011.04 |
| 8 |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관리 습관 | 문장 | 퀀트 신들러 | 2009.03 |
| 9 | 종이 여자 | 밝은세상 | 기욤 뮈소 | 2010.12 |
| 10 | 자기혁명 | 리더스북 | 박경철 | 2011.10 |
| 11 | 하루 15분 정리의 힘 | 위즈덤하우스 | 윤선현 | 2012.03 |
| 12 | 섹스의 재발견 벗겨봐 | 모아박스 | 조명준 | 2012.05 |
| 13 |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 센추리원 | 양창순 | 2012.02 |
| 14 | 고구려. 1: 도망자 울불 | 새움 | 김진명 | 2011.02 |
| 15 | 덕혜옹주 | 다산책방 | 권비영 | 2009.12 |
| 16 | FBI 행동의 심리학 | 리더스북 | 조 내버로 | 2010.09 |
| 17 | 스티브 잡스의 세상을 바꾼 말 한마디 | 미르박스 | 휴먼스토리 | 2011.10 |
| 18 | 빅 픽처 | 밝은세상 | 더글라스 케네디 | 2010.06 |
| 19 | 전치사 26개만 알면 영어가 마무리된다 | 길벗이지톡 | 오범탁, 오원준 | 2007.04 |
| 20 | 여자를 증오했던 남자들. 1 | 에디션뿔 | 스티그 라르손 | 2011.01 |

신간 서적이 그동안 전자책으로 활발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듯이 누적 순위 1~3위 전자책 베스트셀러는 2008년 이전에 종이책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였다.

그러나, 순위가 점차 아래로 내려갈수록 최근 발간된 서적을 전자책으로 만든 것이 많아, 역시 독자들의 관심은 전자책분야도 신간 베스트셀러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2년에 발간된 최근의 전자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제법 들어와 있었다. 아마도 올 연말이 되면 누적집계 전자책 베스트셀러의 순위도 신간 서적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앞의 <2011년 종이책 베스트셀러 20위내 순위>와 <누적집계 전자책 베스트셀러 20위내 순위>를 함께 놓고 보면, <자기혁명>과 <종이여자> 단 2권의 책만이 겹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도 우리나라에서 신간 베스트셀러가 전자책으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책의 특성상 장르문학이 강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르문학은 종이책으로 나오지 않거나 설령 종이책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판매에서 약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살펴본 교보문고의 누적 전자책 판매순위는 우리나라 전체 전자책의 판매 순위 또는 판매경향으로 환산해 살펴볼 수 없다. 전자책 판매처마다 판매되는 전자책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자책의 제작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각 인터넷 서점들이 전자책을 포함한 베스트셀러 집계를 내기 시작해, 올해 말이 되면 우리나라의 전자책 판매추이 경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 BISG&APP(2012). BookStats 2012.
- Informa(2012). The Academic Book Business
- Japan Federation of Printing Industries(2011). Japan – 12th forum of asian graphic arts technology.
- Kathryn Zickuhr, Mary Madden(2012). Public libraries in the digital age.
- Kristen Purcell(2012). Books or Nooks?
- Lee Rainie(2012). The rise of e-reading and the changing role of public libraries, Pew Research Center.
- NewZealand Trade and Enterprise(2012). Book Publishing-Focus on education.
-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12-2016.
- ReportLinker(2012). Book Publishing Industry: Market Research Reports, Statistics and Analysis
- Ruediger Wischenbart(2012). The Global eBook Market : Current Conditions & Future Projections, O'Reilly Media.
- Buchreport, <http://www.buchreport.de>
- China Publishing Today, <http://www.chuban.cc>
- 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 <http://www.fep-fee.be>
- Informazioni Editoriali Italy, <http://www.ibuk.it>
-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http://www.internationalpublishers.org>
- Livres hebdo, <http://www.livreshebdo.fr>
- Online Publishers Association, <http://www.online-publishers.org>
- Professional Publishers Association, <http://www.ppa.co.uk>
- Publishers Association UK, <http://www.publishers.org.uk>
- Publishers Weekly, <http://www.publishersweekly.com>
- The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http://www.publishers.org>
- <http://libraries.pewinternet.org/2012/04/04/the-rise-of-e-reading/>
- <http://libraries.pewinternet.org/2012/06/22/libraries-patrons-and-e-books/>
- <http://www.pwc.com/gx/en/global-entertainment-media-outlook>
- 이용준, 김원제, 정세일(2012). 구텐베르크의 귀환, 이담북스
- 한국콘텐츠진흥원(2010). 2010 해외콘텐츠시장조사
- 한국콘텐츠진흥원(2011a). 2011 해외콘텐츠시장조사
- 한국콘텐츠진흥원(2011b). 2011년 해외 콘텐츠 기업 디렉토리